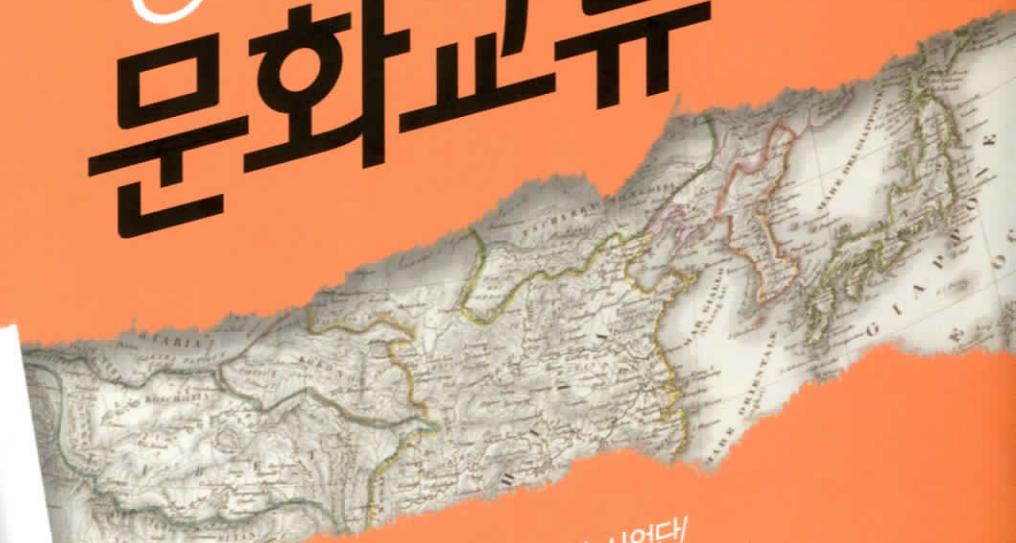


해양과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한국문화연구단 공편
책임편집 이해영·리상우

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한국문화연구단 공편

● 拜根興

陝西師範大學

● 정출현

부산대학교

● 엄태웅

강원대학교

● 王鑫磊

復旦大學

● 陳波

中國南海研究協同創新中心

● 王振忠

復旦大學

● 李岩

中央民族大學

● 김선민

고려대학교

● 조영현

고려대학교

이 저서는 2013년도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09-MB-2002).
또한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61-AL0013).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연구소 총서 05

해양과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Ocean and Exchanges of Culture in East Asia

© 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2014

1판 1쇄 인쇄_2014년 04월 01일

1판 1쇄 발행_2014년 04월 15일

엮은이_中國海洋大學校(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主 編_李海英(이해영)·李翔宇(리상우)

펴낸이_양정섭

펴낸곳_도서출판 경진

등록_제2010-000004호

블로그_<http://kyungjinmunhwa.tistory.com>

이메일_mykorea01@naver.com

공급처_(주)글로벌콘텐츠출판그룹

대표_총정표

편집_김현열 노경민 김다솜 디자인_김미미 기획·마케팅_이용기 경영지원_안선영

주소_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종로 196 정일빌딩 401호

전화_02-488-3280 팩스_02-488-3281

홈페이지_<http://www.gcbook.co.kr>

값 28,000원

ISBN 978-89-5996-258-7 93910

* 이 책은 본사와 저자의 허락 없이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의 무단 전재나 복제, 광전자 매체 수록 등을 금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처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목 차

책을 떠내며	04	
축사	10	
사신 왕래와 당대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 교류	15	
: 새로 발견된 묘지명과 碑刻 자료를 중심으로		[拜根興]
1. 서론	15	
2. 天寶·大曆 연간의 당·신라 간의 각계 인사들의 교류	16	
3. 묘지명에 보이는 당대 중·후기 신라에 갔던 당나라 사신들	25	
4. '日本'이라는 국호가 출현하는 묘지명과 吳懷實의 묘지명	36	
5. 결론	47	
임진왜란과 바다를 건너간 전쟁포로, 굴절된 기억과 서사적 재구	49	
[정출현]		
1. 서론	49	
2. 남기지 못한 기억: 돌아오지 못한 전쟁포로에 대한 편린들	51	
3. 굴절된 기억: 귀국 포로에 대한 의혹과 자기방어	58	
4. 서사적 재구: 귀국 포로의 구술과 재구된 기억	71	
5. 결론	79	
박엽(朴燁)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과 그 의미	85	
: 1623년 處刑 前後부터 1864년 官職 回復 前後까지의 기록을 대상으로		[엄태웅]
1. 서론: 중국소설 애호가이자 허균의 친구 박엽	85	
2. 박엽 처형 기록 실종의 의미	89	
3. 處刑 前後의 부정적 기억들	95	
4. 18세기, 궁정적 기억의 조짐들	103	
5. 19세기, 궁정적 기억으로의 재구성	108	
6. 역사적 평가의 현재성	121	
7. 결론: 역사의 서사, 서사의 역사	124	

동쪽 끝에서 교남(交南)까지 -----	128
: 17세기 일본 체류 조선인 趙完璧의 安南행	[王鑫磊]
1. 조완벽 사건의 역사적 문헌, 流傳 배경 및 관련 연구	129
2. 조완벽이 바다를 건너 안남으로 간 경험 및 견문	135
3. 여론(餘論)	161
삼번(三藩)의 난을 둘러싼 일본과 조선의 정보 교섭 -----	174
	[陳波]
1. 對馬의 倭書	176
2. 조선의 풍문	197
3. 여론(餘論)	206
청대 전기 강남 해외무역에서의 해상 선원 관리 -----	210
: 일본 나가사키(長崎) 唐通事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王振忠]
1. 抄本『浙江嘉興平湖縣給商船示約、崎館海商條約』에 관하여	213
2. 중국 해상 선원의 생활 실태와 그들의 일상에 대한 관리	264
3. 해상 선원, '무뢰한'과 '倭患'	
: 머지않은 殷나라의 쓰라린 본보기와 江南 민중들의 고통의 기억	319
4. 결론	334
박지원의 『서이방익사(書李邦益事)』에 나타난 臺灣·澎湖島·閩 유람 고찰 --	336
	[李岩]
국경지대에서 국경선으로 -----	355
: 19世紀末 清과 朝鮮의 關係	[김선민]
1. 서론: 봉금에서 개방으로	355
2. 정말 동북변경의 변화	364
3. 조선인의 범월과 개간	372
4. 청과 조선의 국경 교섭	381
5. 결론: 근대국가와 국경선	390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銀 유통과 교역망' -----	396
: 주제의 설정과 그 의미	[조영현]
1. 여는 글: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의 3분법	396

동쪽 끝에서 교남(交南)까지*

: 17세기 일본 체류 조선인 趙完璧의 安南행

王鑫磊

(復旦大學)

1597년, 조완벽이라는 조선 선비가 정유왜란 당시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 후 일본 상선을 따라 세 차례 바다를 건너 안남(베트남)을 왕래하면서 당시 안남의 여러 가지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1607년, 조완벽은 조선통신사를 따라 조선으로 돌아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견문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경험과 견문은 이수광 등 조선의 학자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 문집은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조완벽 사건의 줄거리이다.

* 이 글은 복단대학 '985工程' 제3기에 추진한 인문 과학 연구 프로젝트 '주변에서 중국 보기'의 단계적 성과임.

1. 조완벽 사건의 역사적 문헌, 流傳 배경 및 관련 연구

오늘날 볼 수 있는 조완벽의 안남행과 관련된 문헌은 주로 17세기 조선 문인들의 문집에 기록된 것이다. 몇몇 한국 학자들은 조완벽 본인도 자전적 『조완벽전』을 써서 자신의 안남 경험을 기록한 적이 있다고도 하지만, 이 문헌은 이미 失傳되었다. 따라서 전달의 성격을 띤 동시대 조선 문인들의 기록이 사실상 이 일을 연구하는 후대 사람들의 가장 원시적인 자료가 되었다. 이수광(李暉光, 1563~1628)의 『趙完璧傳』,¹⁾ 정사신(鄭士信, 1558~1619)의 『趙完璧傳』²⁾과 이준(李浚, 1560~

1) 이수광(1563~1628), 본관은 全州, 字는 潤卿, 號는 芝峰, 諡號는 文簡이다. 조선 太宗 李芳遠의 아들인 敬寧君 李桃(비)의 5대손으로, 國姓이다. 1585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에서 副正字가 되었으며, 成均館 典籍, 禮曹佐郎, 吏曹正郎, 弘文館 校理, 兵曹參議, 成均館 大司成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608년 光海君이 집권한 후, 한사코 거절하고 출사하지 않으며 광해군의 弊政을 직언하고 상소를 올린 일로 명성이 자자했다. 仁祖反正(1623년) 후, 다시 弘文館 提學, 吏曹參判, 司憲府 大司憲, 工曹判書 등을 역임하였으며, 당시 “中興 정치에 대한 章疏로는 이수광을 뛰어넘는 자가 없었다(中興章疏, 無出其右者)”라고 평가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吏曹判書를 지내다가 졸하였고,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으로 추증되었다. 44년간 관직에 있으면서 宣祖, 광해군, 인조의 세 임금을 모셨고, 임진왜란, 光海亂政, 인조반정, 丁卯虜亂 등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몸도 겪었다. 1590년 聖節使 書狀官, 1597년 進慰使, 1610년 冠服奏請使 副使를 맡아 명나라에 세 차례나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사행 기간 중 안남, 유구, 遷羅의 사신들과 교류를 맺었다. 그는 詩文으로 이름났는데, 『芝峯集』 31권이 남아 있다. 그가 지은 시문은 멀리 안남으로 전파되어 한때 큰 인기를 끌었다. 이수광의 생평과 관련된 정황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할 수 있겠다. ① 『朝鮮王朝實錄·仁祖實錄』 권19 仁祖 6年 12月 26日條, 太白山史庫本(影印本), 제34冊, 312쪽. ② 張維가 쓴 李暉光行狀, 이수광 『지봉집』, 부록 권1(한국: 민족문화추진회 編, 『韓國文集叢刊』 제66冊, 景仁文化社, 1990, 318~323쪽). 장유의 『谿谷集』 권15 「行狀五首」(앞서 인용한 『한국문집총간』 제92冊, 248~253쪽). ③ 이준이 쓴 李暉光行狀, 이준의 『蒼石集』 권18 「行狀」(『한국문집총간』 제64冊, 547~580쪽). ④ 李敏求(이수광의 둘째 아들)가 쓴 「李暉光行狀」, 이민구의 『東州集』 권6 「行狀」(『한국문집총간』 제94冊, 350~359쪽). 이수광 『조완벽전』, 이수광의 『지봉집』 권23 「雜著」(『한국문집총간』 제64冊, 252~254쪽).

2) 정사신(1558~1619), 본관은 清州, 자는 子孚, 호는 梅窓 또는 神谷이다. 1582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禮曹正郎, 弘文館 修撰, 掌吏院 判決事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610년 賀冬至使에 임명되어 사신으로 명나라에 갔다. 그 생평은 정사신의 『梅窓集』 권5 「附錄·行狀」(『한국문집총간』 繳編 제10冊, 464~466쪽)을 참조하며, 정사신의 『조완벽전』은 『매창집』 권4 「傳」(『한국문집총간』 繳編 제10책, 462~463쪽)에 수록되어 있다.

1635)의 『記趙完璧傳見聞』³⁾이다. 이 세 작자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자신이 들었던 조완벽 사건을 전달한 것이다. 그 중, 이준과 정사신은 모두 자신이 김윤안(金允安)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을 들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김윤안의 소식의 근원지가 바로 조완벽 본인이다.⁵⁾ 이수광의 경우, 그의 『조완벽전』에 자신이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와 이준, 정사신 두 사람과 대단히 친밀했던⁶⁾ 것으로부터 추측해 보면 이 두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임이 틀림없다. 이 세 가지 문헌은 편쪽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수광이 쓴 것이 1613자로 가장 길고, 그 다음 정사신이 쓴 것이 1125자이며, 이준이 쓴 것이 가장 짧아 537자에 불과하다. 내용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각각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므로 서로 참고하고 보충할 부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조완벽 사건의 자초지종을 전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세 문헌을 비교하며 읽

3) 이준(1560~1635), 본관은 興陽, 자는 叔平, 호는 蒼石 또는 酉溪, 시호는 文簡으로, 柳成龍의 문인이다. 1591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工曹參議, 承政院 右承旨, 吏曹參判, 弘文館 提學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604년 奏請使 書狀官에 임명되어 사신으로 명나라에 갔다. 그의 생평은 蔡濟恭 『樊岩集』 권39 「行狀·蒼石先生李公行狀」(『한국문집총간』 제236冊, 199~213쪽 참조하며, 이준의 『記趙完璧見聞』은 『蒼石集』 권12 「雜著」(『한국문집총간』 제64冊, 446쪽)에 수록되어 있다.

4) 김윤안(1562~1635), 본관은 順天, 자는 而靜, 호는 東籬로, 유성룡의 문인이다. 1612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司宰監 直長, 大丘 府史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의 생평은 그의 문집인 『東籬集』 권5 「附錄·行狀」(『한국문집총간』 繼編 제12冊, 85~87쪽)을 참조한다.

5) 이준은 “김이정(김윤안)이 趙生에게 이 일을 듣고 나에게 매우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으므로 일을 전달하여 사관이 기록할 수 있도록 적어둔다 (金君而靜, 聞此事於趙生, 話餘甚詳, 異而識之, 下一轉語, 以備史氏之采取)”고 기록하고 있다(앞서 인용한 이준의 『기조완벽전문』, 『한국문집총간』 제64冊, 446쪽 참조). 정사신 또한 “이 일은 金直長 윤안이 말한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앞서 인용한 정사신의 『조완벽전』, 『한국문집총간』 繼編 제10冊, 463쪽 참조).

6) 이준과 정사신은 모두 이수광의 문집에跋文을 썼다. 이수광의 『지봉집』 권8에 수록된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 아래에 이준과 정사신 두 사람의 쓴跋文이 있다(『한국문집총간』 제66冊, 91쪽 참조). 또 그에 앞서 이준이 이수광을 위해 행장을 쓴 일도 언급하고 있어, 이수광, 이준, 정사신 세 사람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

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사실 조완벽 사건이 이 세 사람의 손을 거쳐 서술되고 전해진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원인은 이수광이라는 인물에게 있다. 그것은 그가 쓴 『조완벽전』의 편폭이 가장 길어서가 아니라, 조완벽이 안남에 가서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사건 하나가 이수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조완벽은 안남에 있을 때 안남의 지식인 사이에서 뜻밖에도 이수광의 詩詞가 매우 유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詩詞들은 이수광이 1597년 명에 사신으로 갔던 기간에 안남 사신 풍극관(馮克寬)⁷⁾과 주고받았던 작품으로, 풍극관의 손을 거쳐 안남까지 전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소식은 조완벽을 통해 조선에 전해졌고 바로 유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당시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멀고 먼 안남의 상황보다는 조완벽의 말이 바로 그 시대 조선의 인물이 관련된 새로운 사건이었으므로 사회에서 분명히 더욱 빠르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더욱 널리 영향을 주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다. 김윤안이 이준과 정사신 두 사람에게 조완벽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원인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후 ‘지봉의 시가 먼 나라까지 전파된’ 것(지봉은 이수광의 호이다)은 줄곧 조선인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었고,⁸⁾ 이수광 자신도 이 일을 회고할 때 감격해 마지않았다.⁹⁾ 이수광의 생평을 기록한 모든

7) 풍극관(1528~1613), 본관은 安南 後黎朝 山西 石室縣 馮舍鄉이며, 자는 弘夫, 호는 毅齋, 별호는 敬齋이다. 1580년 진사에 급제하였으며, 都給事中, 鴻臚寺卿, 工部右侍郎 역임하였다. 1597년 사신으로 명나라에 갔다. 그 후 戶部, 工部尚書를 역임하였고, 梅郡公이라는 작위를 받았다. 저서로 『使華手澤詩集』, 『言志詩集』, 『馮太傅詩』 등이 있다. 그의 생평은 『越南漢文燕行文獻集成(越南所藏編)』(復旦大學校 文史研究院·성균관대학교 東亞學術院合編 제1책, 復旦大學出版社, 2012, 57쪽, 解題)에 보인다.

8) 예를 들면 조선 후기의 저명한 학자인 李德懋는 『淸脾錄』에서 “지봉시가 먼 나라에까지 전파된” 것을 주제로 하여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기록하였는데, 여기에서 조완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이덕무, 『靑莊館全書』 권35, 『한국문집총간』 제258冊, 60~62쪽 참조).

9) 이수광 『지봉집』 권16 『續朝天錄』에 “정유년, 북경에 갔을 때 안남 사신 의재 풍극관을

문헌에서 거의 예외 없이 모두 이 사적을 기록하고 있다.¹⁰⁾ 조완벽 사건이 당시에 유전되면서 이수광의 사적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조완벽이 안남에 가서 보고 들은 것 중에 이수광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의 안남에서의 경험이 후대에 알려질 가능성은 아마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조완벽은 어디까지나 그저 지위가 낮고 무시당할 수 있는 하층 선비였으므로 그 말과 저술은 사람들 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직접 쓴 『조완벽전』이 결국 失傳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조완벽의 사건은 이수광과 그의 벗들에게 전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들은 모두 당시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세 사람 모두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제 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이수광은 안남의 사신과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조완벽 사건을 통해 전달된 더욱 가치 있는 정보, 다시 말해서 당시 절대 다수의 조선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안남의 정보를 민감하게 의식할 수 있었다. 정사신과 이준 두 사람이 조완벽의 傳記를 썼다고 한다면 자신의 벗을 치켜세우려는 의도를 약간은 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수광의 『조완벽전』의 중점은 방향을 달리하여 안남과 관련된 정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또 이수광의 『조완벽전』을 연구자들이 가

만났는데, 이별할 때 시를 주고 받았다. 근년에 조선 사람으로 조완벽이라는 자가 왜의 포로가 되어 왜의 상선을 따라 안남에 갔다고 한다. 그 나라 사람들 중 부족한 이 사람의 시를 읊고 질문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후에 조완벽이 조선으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안남은 우리나라에서 만 리나 떨어져 있어 지금껏 통호한 적이 없다. 게다가 멀고 험한 바닷길을 가야 하므로, 이 일이 또한 신기하다(丁酉赴京時, 遇安南使臣馮毅齋克寬, 留詩爲別。頃年本國人趙完璧者陷倭中, 隨商僑往安南。其國人頗有誦鄙詩而問之者。後完璧回本國, 傳說如此。夫安南去我國累萬里, 曆世莫通, 況海路之險遠乎, 事亦奇矣。)"라고 했던 것을 참조한다(『한국문집총간』 제66권, 157쪽).

10) 앞서 인용한 「李暉光行狀」 각주 1) 및 시문집 「序跋」(위의 각주 9)을 참조한다.

장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완벽 사건은 이수광의 사적 덕분에 끊임없이 전파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수광의『조완벽전』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경적 및 문헌에 기록되어 끊임없이 후인들에 의해 인용되고 전달되어¹¹⁾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완벽 사건의 유전 과정은 역사적 사건의 기록과 보존이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다시 말해 사건의 실제 경험자와 기록을 보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역사적 사건은 전달의 방식을 통하여 보존된다. 이렇게 한 가지 과정은 또 종종 적절한 기회와 인연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른바 적절한 기회와 인연이라는 것 모두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역사가 보존되는 경우는 매우 적지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더욱 진귀한 것이다.

조완벽 사건에 대한 연구 성과는 한국과 일본 모두 적지 않다. 많은 한일 학자들은 조완벽 사건에 나타난, 조선·일본·월남 삼국의 관계사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했다. 예를 들면 한국학자 김태준(金泰俊)은 「壬辰亂과 朝鮮文化의 東漸」이라는 글에서 조완벽 사건을 조선과 일본의 관계사의 범주에 넣고 논의를 전개했다.¹²⁾ 일본 학자

11) 후인들이 조완벽의 사건을 인용하고 옮겨 적은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安鼎福(1712~1791), 『木川縣志』(1817)에 이수광의『조완벽전』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일부 글자에 차이가 있다(안정복, 『목천현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번호: 古2738~4). 일본학자 嶩生成一是 1954년에 이 문헌을 토대로 하여「安南国渡航朝鮮人趙完璧伝について」를 썼다(『朝鮮学報』卷6, 日本: 朝鮮学会, 1954.08, 1~12쪽). ② 李志恒(생줄년 미상), 『漂舟錄』(1756)에서는 조완벽 사건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지봉유설에서 본 이야기(出芝峰類說異聞)”라고 하여 주석을 달아 출처를 밝히고 있다(이지향, 『표주록』, 한국: 民族文化推進會 편, 『國譜海行摠載』, 採求堂, 1975, 제3冊, 원문, 69쪽). ③ 李圭景(1788~1856),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木棉, 地桑, 孔雀 등 사물의 속성을 소개하면서 이수광의『조완벽전』에 기록된 안남에서의 견문을 인용하였다(이규경, 한국: 古典刊行會 編, 『오주연문장전산고』(上·下編), 東國文化社, 1959, 상편 496쪽, 432쪽, 하편 550쪽).

가타쿠라 미노루(片倉穣, かたくら みのる)는 「朝鮮とベトナム日本とアジア: ひと・もの・情報の接触・交流と対外観」이라는 글에서 조완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고대 조선·일본과 안남 삼자의 관계를 토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¹³⁾ 일본 학자 이와오 세이치(岩生成一, いわお せいいち)의 글 「安南国渡航朝鮮人趙完璧伝について」¹⁴⁾에서 는 조완벽 사건을 소개하며, 그 속에 나타나는 일본과 안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이외에 孫燦植의 「『趙完璧傳』을 통해 본 芝峯 李睟光의 越南 認識」¹⁵⁾과 같이 고대 조선인의 월남 인식의 관점에서 논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權赫來의 「『조완벽전(趙完璧傳)』의 텍스트와 문학적 의미 연구」¹⁶⁾ 및 趙家元의 「이수광『조완벽전』의 서사적 특징」¹⁷⁾과 같이 『조완벽전』의 원문과 문학성을 분석한 경우도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 연구자들은 조완벽의 일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
- 12) 金泰俊, 『壬辰亂과 朝鮮文化의 東漸』, 韓國研究院, 1977, 제6장에서 조완벽 사건을 언급하였다.
- 13) 앞서 인용한 片倉穣의 「朝鮮とベトナム日本とアジア: ひと・もの・情報の接触・交流と対外観」, 제2장 「『趙完璧傳』研究」 참조.
- 14) 岩生成一, 「安南国渡航朝鮮人趙完璧伝について」, 『朝鮮学報』第6輯, 日本: 朝鮮学会, 1954, 1~12쪽 수록.
- 15) 孫燦植, 「『趙完璧傳』을 통해 본 芝峯 李睟光의 越南 認識」, 『고소설연구』 제21집, 한국: 고소설학회, 2006, 215~247쪽 수록.
- 16) 權赫來, 「『조완벽전(趙完璧傳)』의 텍스트와 문학적 의미 연구」, 『어문학』 제100집, 한국: 어문학회, 2008, 205~234쪽 수록.
- 17) 趙家元(音譯), 「『조완벽전(趙完璧傳)』의 텍스트와 문학적 의미 연구」, 『문창어문학』 제48집, 문창어문학회, 2011, 1~40쪽 수록.

2. 조완벽이 바다를 건너 안남으로 간 경험 및 견문

1) 조완벽에 대하여

앞서 서술한 여러 판본의 『조완벽전』의 기록에 근거하고 후대 학자들의 고증을 더하면 조완벽의 생평과 정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조완벽은 조선시대 중기 진주(晉州: 지금의 한국 경상남도 진주시) 사람이다. 기록에 따르면 “약관의 나이에 丁酉倭變(1597년)을 겪었다”¹⁸⁾고 하였다. 옛 사람들은 스무 살이 된 남자를 약관이라 불렀으므로, 그가 태어난 해는 대략 1567에서 1577년 사이인 것으로 추측되며, 卒年은 미상이다.¹⁹⁾ 조완벽은 1597~1598년 ‘정유왜란’ 중에 왜구

18) 이수광, 『趙完璧傳』, 252쪽 참조.

19) 학자들이 조완벽의 생평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 하나가 있다. 조선 시대 科舉 명단인 『國朝文科榜目』의 기록에 따르면 1549년에 進士 급제자 중 ‘趙完璧’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그 출생지가 진주 백천이고 “자가 중국”이라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이 자료는 『조완벽전』 중의 “약관의 나이에 정유왜변을 겪었다”는 기록과는 시간 상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문으로 남겨둔다. 또 정사신의 기록에 따르면 조완벽은 掌令을 지낸 河普實의 종손녀 사위다(앞서 인용한 정사신의 『조완벽전』, 462쪽에 보인다). 하지만 『國朝文科榜目』에 하진보는 1555년에 진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바다를 건너 안남으로 간 조완벽은 1549년에 급제한 조완벽이 될 수 없다. 이 두 사람은 同鄉이면서 동성동명의 다른 두 사람일 뿐이다. 관련 연구로 앞서 인용한 가타쿠라 미노루의 『朝鮮とベトナム日本とアジア: ひと・もの・情報の接觸・交流と對外觀』第二章 및 権赫來의 『조완벽전(趙完璧傳)』의 텍스트와 문학적 의미 연구, 208쪽을 참조한다. 이러한 우연이 출현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으며, 문제는 다만 戰國時代 趙나라의 蘭相如가 秦나라 昭襄왕이 열다섯 개의 城과 和氏璧이라는 普玉을 바꾸자고 하여 진에 사신으로 갔다가 소양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구슬을 빼앗기지 않고 무사히 가지고 돌아왔다는 ‘完璧歸趙’의 전고에서 나온 ‘조완벽’이라는 이름에 있다. 이것은 바로 이른 바 ‘성과 이름에 의미를 연결하는(姓名連意) 현상으로, 顧炎武도 『日知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옛 사람들 중에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성까지 연결하여 지은 자는 극히 드물다. 陳王道, 張四維, 呂調陽, 馬負圖 등과 같은 근대 사람들의 이름이 榜目에 한 번씩은 나오는데, 이와 같은 이름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古人取名連姓爲義者絕少, 近代人命名, 如陳王道·張四維·呂調陽·馬負圖之類, 榜目一出, 則此等姓名幾居其半).” 조선의

의 포로가 되어 일본 京都로 끌려갔다. 일본에 도착한 후, 처음에는 일본인의 노예로 살았으나, 후에 한자를 안다는 이유로 일본 상인 스미노쿠라 료이(角倉了以, すみのくらりょうい)에 의해 고용되었다.²⁰⁾ 잇따라 세 차례(1604, 1605, 1607년) 일본의 슈인센(朱印船)을 따라 안남으로 행상을 다녀오고,²¹⁾ 그사이呂宋(필리핀의 루손)에도 한 차례 다녀왔다. 조완벽이 안남에 머무르면서 안남의 고관 文理侯 鄭勣 및 여러 유생들과 왕래하였으며, 그곳에서 조선인 이지봉(이수광)의 시문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 차례에 걸쳐 안남을 왕래하였으므로 그는 안남의 풍속과 인정에 대해서도 깊이 관찰하였다. 안남에 있을 때, 관원 문리후 정초가 조완벽에게 일본에 돌아가지 말고 안남에 머물면서 중국에서 조선으로 돌아갈 기회를 찾으라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李德懋는 그의 문장에서 고염무의 이 말을 인용하고 조선의 “趙完璧이나 河一清과 같은 부류는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디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趙完璧、河一清之流，到處相逢，指不勝屈)”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青莊館全書』 卷54 「盜葉記」「姓名連意」, 『韓國文集叢刊』 第258冊, 494~495쪽). 사실 중국의 문헌 기록에 보이는 조완벽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元代『通鑑源委』의 작자로 조완벽(趙軍榮, 『趙完璧』通鑑源委聲類研究, 湖南科技學院學報, 2008年 第7期, 212쪽)이라 불리는 자가 있었고, 明代에도 조완벽이라 불렸던 사람의 저서『海壑吟稿』가 『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있으며(張靜, 「明人趙完璧生卒年考」, 『江海學刊』, 2010年 第4期, 60쪽), 임진왜란 기간에도 조완벽이라는 명나라의 관원이 출현한다(이 사람의 관직은 吏部 都給事中이었는데, 『明史紀事本末』 第62卷 「援朝鮮」條 『朝鮮王朝實錄』 宣祖 31年 9月 28일의 기록과 宣祖 32年 2月 19일의 기록에 모두 보인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조선시대 문헌을 살펴본 결과 비슷한 시기 조완벽이라 불렸던 조선인은 여기에서 언급한 두 사람 외에도 대략 4명이 더 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조완벽이라는 이름의 “姓名連意” 특징을 살펴보고 晉州 白川 趙氏가 조선 조씨의 名門이라는 사실을 더하면, 그 중 10년 전후로 출현하는 두 명의 조완벽은 사실 평범한 일인 것이다.

20) 여러 판본의 『조완벽전』에는 모두 그의 일본 고용인이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학자 岩生成一是 당시 일본의 대외무역 상황 및 관련 문헌에 대해 연구한 결과 조완벽을 고용하여 안남에 오가게 했던 사람은 분명 당시 일본의 해외 통상을 특히하는 朱印狀을 가진 무역선인 슈인센(朱印船)을 장악하고 있던 豪商 스미노쿠라 료이[角倉了以]일 것이라 하였다(岩生成一, 앞의 글, 4~5쪽).

21) 赵完璧이 연이어 세 차례 안남에 갔던 시기에 대한 고증은 岩生成一, 위의 글, 4쪽을 참조한다.

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완벽은 안남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²²⁾ 1607년, 당시 조선과 일본이 다시 사이가 좋아졌으므로 조선에서는 사절을 파견하여 일본에 전쟁기간 포로가 된 이들을 석방하여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국서를 보냈고, 마침내 고용주와의 계약이 해지된 조완벽도 아울러 그해 일본에 다녀간 조선의 ‘回答 兼 刷還使’ 呂佑吉과 慶遲 등의 일행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다.²³⁾ 귀국 후 조완벽은 안남에서의 견문을 주변 벗들에게 이야기했고 이는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정사신이 그에 대해 “전과 같이 안정을 되찾아 본업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安居奠業復如初)”고²⁴⁾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그 본인의 이후의 상황은 사료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22) “문리후가 조생을 보고 말했다. ‘당신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여기서 주국으로 쇄환이 되도록 할 수 있소. 그러면 거기서 돌아갈 방도가 생길 것이오. 당신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소.’ 조생 또한 그의 말을 따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 성질이 미덥지 않고 또 본국과의 거리가 매우 멀다는 말을 듣고 그만두었다(文理侯謂生曰：你欲求還本國，自此刷還於中朝，可以轉解，你須留此。生欲從其言，而見其國人多詐難信，又聞距本國甚遠不果云。)”(이수광, 『조완벽전』, 252쪽)

“안남 사람들은 조완벽을 보고 자기 나라에 도망쳐 있으면 나중에 중국을 통해서 조선으로 돌아가게 해 주겠노라고 권했으나 아무래도 미덥지 않아 끝내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安南人)其見完璧也，有勸以逃着此國，使之通中國以回朝鮮云。而見其多詐難信，終不肯從云。)”(정사신, 『조완벽전』, 463쪽)

23) “조생은 정미년(1607)에 여우길 등이 회답사로 갔을 적에 주인에게 간절히 사정하여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生至丁未年回答使呂佑吉等入往時，哀告主僕，得還本土。)”(이수광, 『조완벽전』, 252쪽)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우길과 함께 회답사 副使로 갔던 慶遲의 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慶遲의 『海槎錄』 間6月 初1日條에 “포로가 되었던 진주 사인 조완벽은 영리하며 믿을 만한 사람으로, 論文을 한 차례 보내어 招諭하여 쇄환하게 하였다(被虜晉州士人趙完璧，伶俐可信人也，給論文一度，使之招諭刷還)”이라 기록되어 있다(『(國譯)海行總載』 第2冊, 原文, 49쪽).

24) 정사신, 『조완벽전』, 463쪽.

2) 고용되어 슈인센에 오른 일과 바다에서의 경험

조완벽은 포로의 신분으로 일본에 끌려가 일본인의 노예가 되었다. 이수광은 그에 대해 “일본인의 노예로서 일이 매우 고되었다. 고향 땅이 그리워 언제나 도망쳐 돌아갈 뜻을 품었다”고 기록하였고, 정사신도 그를 “일본인에게 부림을 당해 심부름꾼 노릇을 했으니 우리나라의 노비와 같은 신세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처음 일본에서의 그의 생활이 상당히 고생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몇 년 후 상황이 호전 될 조짐이 보였다. 이수광의 말과 같이 당시 일본인들은 “본디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이익을 중시하는 터라 장사로 본업을 삼고 배를 말안장으로 삼았다. 멀리 바다 밖의 남방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다. 정사신 또한 당시 일본인들 가운데 “안남국에 가서 무역을 하여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에 더해 정사신은 또 일본인이 안남과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는데, “반드시 바다에 익숙하여 候風을 잘하는 자와 글을 쓸 줄 알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를 중국의 浙江에서 구한 이후에야 함께 태우고 출항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조완벽의 고용주가 된 일본 상인은 이미 항해 기술이 뛰어난 절강 사람을 먼저 구하여 첫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글을 쓸 줄 알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여(여기에서 글을 쓸 줄 알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한자를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난감해 하고 있었다. 조선의 사족(士族) 출신으로서의 조완벽은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웠고 ‘글을 알고 이해’한다는 이유로 강요를 받아 출항하게 된 것이다. 정사신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 상인은 또 조완벽에게 “맹세하는 글을 써서 굳게 약속하였다. 안남을 다녀온 후에는 가고 싶은 데로 가도록 너를 길이 방면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조완벽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터라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가기로 하였다.” 따라서 “절강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국으로 향했다.”²⁵⁾

조완벽이 고용되어 슈인센에 오른 기록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상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일본 상인이 간절히 무역을 하고자 했던 것, “바다 밖의 남방 여러 진출하여 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안남과의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는다는 등에 관련된 기록은 당시 번창했던 일본의 대외무역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인이 출항할 때 반드시 먼저 중국의 절강 사람을 구하여 배에 태워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 일본인이 해외 무역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했지만 항해 기술이 여전히 부족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사실 이수광의 『조완벽전』에는 당시 일본인이 반드시 “중국인 중 바닷길에 익숙한 자를 船主로 삼는다”고 기록한 것 외에도 “倭船은 작아서 큰 바다로 운행하기 어려우므로, 백금(은) 80냥으로 唐船을 구입하는데, 이 배에는 180여 명이 탈 수 있다”고²⁶⁾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당시 일본인의 항해 기술이 부족했던 것은 사람에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즉 선박이라는 요소 또한 이와 같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당시 중국의 원양 항해 기술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인이 안남에 무역을 하려 가려면 반드시 한자를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은 당시 동아시아 전역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같은 문자를 쓰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25) 이수광, 『조완벽전』, 252쪽; 정사신, 『조완벽전』, 462쪽.

26) 이수광, 『조완벽전』, 253쪽. 일본 학자 이와오 세이치도 일본 문헌을 분석하여 『조완벽전』에 기록된 이러한 정황이 사실과 일치함을 제기했다. 당시 일본의 대외 무역에 사용되었던 슈인센은 주로 중국의 福建 일대에서 건조되었는데, 일본 문헌 중에도 이 슈인센의 크기와 규모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조완벽전』에서 18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기록과 부합된다(岩生成一, 앞의 글, 5쪽 참조).

다. 이 사건에서 일본 상인이 고용한 한문 번역가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자를 잘 아는 조선인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희극적이다. 사실 일본인이 임진왜란 중에 포로가 된 한자를 아는 조선인을 해외 무역에서 한문 번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용한 상황은 절대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중국 문헌 중에도 연해에서 발견된 일본 표류 상선에 번역을 담당하는 조선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²⁷⁾

안남에서 돌아온 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조완벽은 위험을 무릅쓰고 면 바다를 항해하는 여정에 올랐다. 하지만 나중에 일본 고용주는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²⁸⁾ 지금 볼 수 있는 『조완벽전』에는 그의 바다에서의 경험이 모두 일정한 편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이수광과 정사신의 기록이 특히 자세하다. 이러한 항해 노정, 항해 기술 및 바다에서의 기이한 견문 등을 포함하는 기록은 고대 아시아 해역 및 해역에서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자료를 제공해 준다.

27) 『皇明神宗皇帝實錄』萬曆 37 年(1609 年) 5 月 2 日條: “표류하다 복건 小埕에 들어온 왜인 선이 있었는데, 수군이 漳港 및 仙崎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포로로 잡은 이들은 27명이었는데, 통역해 보니 일본 상인이 이역에 장사를 가다 풍랑을 만나 표류한 것이라 하였다. 그들 중에 조선 사람은 지난해 일본에 포로로 잡혀 팔린 자였는데, 다음으로 呂宋과 西番에 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들 중에는 미리 스스로를 팔아 심부름꾼이 되기도 하였고 어떤 자는 배에 타 조선으로 돌아갔다.”(岩生成一, 「安南國渡航朝鮮人趙完璧伝について」, 7 쪽에서 재인용).

28) 정사신, 『조완벽전』, 463쪽: “조완벽이 일본으로 돌아오자 그의 주인은 약속을 어기고 방면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안남으로 가기를 강요하여 재차 약속 문서를 작성하였다. 조완벽은 부득이하게 다시 안남을 다녀오게 되었으나 이번에 돌아왔을 때도 역시 방면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完璧旣回日本, 其主僕者背盟不放, 又要再往安南, 更成盟文爲約. 完璧不得已再往, 及還又不肯放去).”

(1) 항해 노정

여러 문헌 중에서도 항해 노정에 대한 이수광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다.

안남은 일본에서 바닷길로 3만 7천리나 떨어져 있다. 薩摩州(사쓰마슈)에서 출항하면 중국의 漳州, 廣東 등을 거쳐 안남의 興元(홍옌)縣에 당도한다.²⁹⁾

조생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바닷물은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 廣東에서 70리 거리에 있는 바다 가운데 鶴龍山이 있는데, 산은 아주 높고 험하며 땅은 온통 나지막하다. 계룡산 동쪽으로 물이 꺾여 흐르기 때문에 배로 가기에 매우 위험하다. 반드시 계룡산 안쪽으로 통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쓸려 가서 동쪽 바다까지 가야 멈출 수 있었다. 대개 물의 형세가 이처럼 사납고 급했다. 일본에서 주야로 40일 또는 50~60일을 항해해야만 비로소 안남 땅에 닿을 수 있었다. 돌아올 때는 물의 흐름을 따라서 항해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15일이면 일본 땅에 닿을 수 있다. 큰 바다에서 항해를 하자면 바람을 이용해야 하므로 매년 3, 4, 5월이라야 갈 수 있고 6월 이후에는 갈 수 없었다.³⁰⁾

일본에서 안남까지의 해로 여정과 항해 노선에 관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안남은 일본에서 바닷길로 3만 7천 리다. 살마주(沙

29) 李晽光, 『趙完璧傳』, 252等: “安南去日本海路三萬七千里, 由薩摩州開洋, 曆中朝漳州、廣東等界, 抵安南興元縣。”

30) 이수광, 『조완벽전』, 253等: “生又言海水西高東下。距廣東七十里，海中有鶴龍山，山極高峻，地皆淺灘。鶴龍山之東，水折而東走，舟行甚艱，必由山內以過，不然則漂流至東海乃止。蓋水勢悍急如此。自日本晝夜行四十日或五六十日始達安南，還時則順流十五晝夜可抵日本矣。大海中舟行以風便，故每三、四、五月可行，六月以後不得行舟。”

츠마슈)에서 출항하면 중국의 장주, 광동 등지를 거쳐 안남의 흥원(홍옌)현에 당도한다.” 항해 시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서 주야로 40일 또는 50~60일을 항해해야만 비로소 안남 땅에 닿을 수 있었다. 돌아올 때는 물의 흐름을 따라서 항해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15일이면 일본 땅에 닿을 수 있다. 큰 바다에서 항해를 하자면 바람을 이용해야 하므로 매년 3, 4, 5월이라야 갈 수 있고 6월 이후에는 갈 수 없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과 안남 간의 해로는 가는 여정과 돌아오는 여정에 필요한 시간이 반 이상 차이가 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대에는 주로 바람의 힘을 빌려 범선으로 항해했고, 풍향이 배의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외에 해류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가고 돌아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수광은 당시 기록에서 이미 “큰 바다에서 항해를 하자면 바람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조완벽이 가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고 한 원인 중 하나는 “바닷물은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지금의 관점으로 보자면 과학적인 부분은 떨어지지만 당시 사람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을 대략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수광은 이 항로가 “매년 3, 4, 5월이라야 갈 수 있고, 6월 이후에는 갈 수 없다”고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실제로 아시아 해역의 계절풍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廣東에서 70리 거리에 있는 바다 가운데 鷄龍山이 있는데, 산은 아주 높고 험하며 땅은 온통 나지막하다. 계룡산 동쪽으로 물이 꺾여 흐르기 때문에 배로 가기에 매우 위험하다. 반드시 계룡산 안쪽으로 통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쓸려가서 동쪽 바다까지 가야 면출 수 있었다.” 이것은 중국 동남연해 일대의 해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2) 항해 기술

상대적으로 정사신의 기록에는 항해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훨씬 많다.

절강 사람이 늘 선상에서 풍향을 관측하는 五綱扇 및 日影臺를 이용하여 바람의 방위를 잡았으며 밤에는 별자리를 보고 방위를 분간했다. 절강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해서 어느 나라로 가는 길을 雲南, 閩浙, 寧波, 일본, 南蠻, 조선, 汎羅 등지까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환히 알고 있었다. 또 바다 밑의 흙 색깔로 어느 지방인지를 알아냈다. 항상 긴 닷줄 끝에 철추를 매달고 철추 밑에 찰밥을 붙여 긴 뱃줄을 이어서 아래로 내리면 곧장 3백, 4백 길 아래까지 닿는다. 철추 아래로 묻어 나온 흙을 살펴서 혹은 검고 혹은 흰 것으로 그 지역이 어딘지 알아내는 것이다.³¹⁾

여기에서 언급한 풍향을 관측하는 오량선과 일영대 및 밤에는 별자리를 보는 일 등은 항해 중에 풍향과 방위의 변별을 돋는 기구이자 기술이다. 물론 기구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경험이었다. 배 위의 절강 사람은 “운남, 민절, 영파, 일본, 남만, 조선, 탐라 등지 까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는” 것이야말로 항해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상술한 것들보다, 기록하는 사람이 가장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바다 밑 흙 색깔’로 방위를 분별하는 절강 사람의 기술이었던 듯하다. 정사신이 이 부분을

31) 정사신, 『조완벽전』, 462쪽: “浙江人常於船上，持候風五綱扇及日影臺。夜則看星象以分方位，及由某方向某國之路，如雲南閩浙寧波日本南蠻朝鮮耽羅之屬，了然指掌。又以海底沙土之色，辨其爲某地某方。常以長繩懸鐵錘，於錘下塗粘糊飯，繫長繩而下，或至直下三四百餘把者，看其錘底所粘出沙土或塗或白，以辨其地方焉。”

상세히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이수광과 이준 역시 항해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적지는 않았으나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이 점을 언급하고 있다.³²⁾ 이는 분명 그들이 보기에 이 기술이 비교적 신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기술에 있어서는 정사신이 자세한 사정까지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이 “긴 닻줄 끝에 철추를 매달고 철추 밑에 찰밥을 붙여 긴 뱃줄을 이어서 아래로 내리면 곧장 3백, 4백 걸 아래까지 닿으면” 철추 아래로 흙이 묻어나온다는 것도 포괄하여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절강 사람이 바다 밑 흙의 색깔이 흑은 검고 흑은 흰 것으로 방위를 알아내는 것까지 언급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일본 학자 이와오 세이치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이 일본의 항해 사료의 기록에도 많다고 하였다.³³⁾ 이를 통해 그 방법이 당시에 비교적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경험적 항해 기술임을 알 수 있다.

(3) 바다에서의 견문

조완벽 사건의 기록자로서 ‘흙을 건져 색을 보고 방위를 분별하는’ 방법이 신선하긴 했지만, 조완벽이 말한 다른 해상 견문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이 절에서는 이수광, 정사신, 이준 세 기록자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기록한 내용, 바로

32) 이수광은 “또 뱃줄을 아래로 드리워 갈고리로 바다 밑 흙을 끌어올려서 그 색깔을 보아 방위와 원근을 분별하였다(又用繩索垂下, 鉤出水底土, 以其色辨方位遠近)”(이수광, 『조완벽전』, 253쪽)고 기록하고 있고 이준은 “바닷길을 잘 아는 중국 사람과 동행하였는데, 갈고리로 바다 밑 흙을 끌어올려서 그 색깔을 살펴 방위를 분별하였다(有華人之鮮事者同在行中, 鉤出水底土, 視色而辨方焉)”(이준, 『記趙完璧見聞』, 446쪽)고 기록하고 있다.

33) 岩生成一, 앞의 글, 6쪽 참조.

조완벽이 ‘바다에서 용을 만난’ 기이한 견문을 언급하고자 한다. 정사신의 기록에 따르면, 조완벽은 바다 위에서 선장이 그에게 해 주던 괴이한 이야기를 듣곤 했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는 때로 ‘여인의 형상과 비슷한 괴물’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한 바다 괴물은 “예로부터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는 漢나라 때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다. 마주치면 “반드시 유밀과나 국수, 떡, 등 것으로 제사를 지내고 바다에 던져야만 배가 전복되는 화를 면할 수 있다”. 또 바다에서는 항상 고래를 마주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큰 고래가 바다를 가로질러 물을 뿜어 하늘에 퍼지는 것을 본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은 “닻을 내려 배를 멈추고 있다가 그치기를 기다린 후에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바다 괴물과 고래 같은 것은 용에 비교하면 그저 작은 무당이 큰 무당을 만난 것쯤으로 여길 수 있다. 선장의 말에 따르면 “남해에는 늘 안개가 자욱하고 비가 오기 때문에 바다 속에는 큰 용이 많다고 한다. 바다에 있는 용은 필시 어떠한 물건에 기대 몸을 걸쳐야만 구름을 얻어 변신하고 승천하기 마련이라고 한다. 그러한 경우, 용이 배 위에 몸을 걸치면 배는 분명 번복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뱃사람들은 용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기겁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하지만 용이라고 해서 대처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용을 물리치는 방법은 “생닭 50~60마리를 불에 태워 냄새를 풍기고 그것을 찢어 뱃머리에서 바다로 던지면 용이 물 밑으로 사라지므로 재난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당시 먼 바다를 항해하던 배에서는 반드시 “항상 닭 수백 마리를 싣고 항해해야만 했다”.³⁴⁾

당연히 이 부분을 기록할 때는 바다 괴물, 고래, 심지어 용과 관련

34) 정사신, 『조완벽전』, 462쪽.

된 이러한 일은 그저 전해들은 수준으로 남겨두고, 항해 중 무료한 시기에 선장의 이야기거리였을 뿐인 이 내용을 생략하지 않았다. 가장 신기한 것은 조완벽의 말대로 그가 직접 용을 만났다는 것이다. 정사신은 “조완벽이 안남국을 두 번 왕래하는 사이에 청룡을 한 번 만났는데, 비늘을 번쩍이고 꿈틀거리며 다가올 때 이와 같이 제를 올려 물리쳤다고 했다”고³⁵⁾ 기록하고 있으며, 이수광과 이준도 조완벽이 ‘바다에서 용을 만난’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했다.³⁶⁾ 더욱이 이 수광은 선원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용을 쫓지 못하자 총포 수십대로 일제히 사격하고 난 후에야 쫓을 수 있었다는 세세한 내용까지 묘사하고 있다.³⁷⁾ ‘바다에서 용을 만난’ 이 이야기는 지나치게 황당무계

35) 정사신, 『조완벽전』, 462쪽: “完璧之再往來也, 適一遇青龍, 其鱗甲光芒, 蜿蜒來去也. 其禳之如許云.”

36) 이수광은 “하루는 수십 보 안의 거리에서 검푸른 용이 갑자기 나타 뱃사람들이 모두 아연실색하였다. 이윽고 검은 안개가 공중에 펼쳐지고 오색 무지개가 나타나더니 우박이 떨어지고 파도가 용솟음쳤다. 배가 위아래로 흔들려 거의 전복될 지경에 이르기를 서너 차례나 하였다. 대개 용이 솟구쳐 하늘로 오르려다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뱃사람들은 매양 용을 만나면 급히 유황이나 닭털을 태우는데 용이 그 냄새를 싫어해서 피해 간다고 했다. 이날도 다급한 판에 닭 수십 마리를 산 채로 잡아 불 속에 던져 태웠다. 그래도 용이 배에 접근해 와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화포 수십 정에 장전을 해서 일시에 발사하니 용이 그제야 물속으로 사라져 마침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一日, 數十步外, 有蒼龍奄至, 舟人失色. 俄而黑霧漲空, 有五色虹覆之, 雨雹交下, 波濤騰湧如沸. 舟上下震蕩幾復, 如是者三四. 蓋龍奮迅欲升空而未能故也. 舟人每遇龍則輒爇硫黃及鷄毛, 龍惡其臭避去. 是日倉卒, 取數十活鷄投火燒之. 龍又將逼舟, 舟人計沒奈何, 以銃炮數十, 一時齊發, 龍忽沒水去, 遂得脫云)”라고 기록하였으며(이수광, 『조완벽전』, 253~254쪽), 이준은 “하루는 저 멀리 수십 보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데, 흰 거품이 하늘에 흩어지더니 비늘이 번쩍번쩍 빛을 내며 꿈틀꿈틀 다가왔다. 용은 배에 몸을 걸치고 쉬려고 하는 듯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용이 바다 속에서 힘껏 뛰어올라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용은 일행들이 모두 깜짝 놀라 생닭을 태워 수십 마리를 던지고 난 후에야 물러갔다(一日, 見望見數十步之外, 白沫灑空, 鱗甲閃閃, 漸見蜿蜒而前, 若欲跨行舟而偃息者, 蓋龍自海中欲奮迅騰空, 而未易致力故也. 一行愕眙, 煙活鷄累十投之, 乃避去)(이준, 『기조완벽전문』, 446쪽)라 기록하고 있다.

37) 화포를 쏘아 용을 물리쳤다는 이수광의 기록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현대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준과 정사신이 조완벽의 사건을 먼저 듣고 난 후 이수광에게 말해 준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이준과 정사신의 기록은 모두 닭을 태워 용을 물리쳤다는 것에

한 일이 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완벽 사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두 이 용을 고래 같은 대형 바다 생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분명 바다 위의 자연 현상이었을 것이다. 海龍卷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희오리바람으로, 그 모습 때문에 고대의 항해자들은 이러한 자연 현상을 용으로 상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많은 과학 연구에서 중국의 남해 일대는 그 특수한 자연 조건으로 인해 해룡권이 많이 발생하는 지대임을 제기하였다. 사실, 조완벽이 만난 것이 용인가, 고래인가, 아니면 바다의 희오리바람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토론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당시에 조완벽이 자신이 본 것을 용으로 여겼는데, 전달하는 사람도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배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대의 인지 수준으로 옛 사람들의 생각을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역사 연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외에도 ‘바다에서 용을 만난’ 이 이야기의 존재는 대략 상술한 이수광의 사적과 마찬가지로 조완벽 사건이 후대에 전해지는 데 일정한 이바지를 했다고 사료된다.

3) 安南에서의 견문

조완벽은 일본 상선을 타고 50여 일 동안의 항해 끝에 결국 안남에 당도했다.³⁸⁾ 조완벽이 안남에서 보고 들은 것은 현존하는 여러 『조

서 그치고 있을 뿐 화포를 쏘아 용을 물리치는 내용은 기록에 없다. 그렇다면 화포를 쏘아 용을 물리쳤다는 기록은 또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것은 이수광이 『조완벽전』을 쓰기 위해 조완벽에게 그 상황을 다시 알아본 것이거나 문학성을 가미한 자신의 창작물일 것이나 고증할 수 없는 문제이다.

38) 정사신, 『조완벽전』, 462쪽: “배로 50여 일을 가서 안남국 변경에 당도했다(舟行五十餘日, 乃達安南國界).”

완벽전』의 가장 핵심적인 기록으로, 대략 세 가지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安南에 유행한 李芝峰의 詩

앞서 조완벽 사건의 유전에 대해 서술하면서 조완벽이 이수광(이지봉)의 시문이 안남에서 유행하던 것을 발견한 것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사건의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文理侯 鄭剿라는 이가 환관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다. 나이는 80세였으며, 그가 사는 집은 굉장히 호사스러웠다. 그 지방 사람들은 대체로 지붕을 띠로 덮는데 문리후 집만은 油灰를 써서 기와를 이었으며, 공작 깃털로 짠 생초로 휙장을 둘렀다. 어느 날 조생이 초청을 받고 문리후 집으로 갔더니, 높은 벼슬아치 수십 사람이 둘러 앉아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 네들은 조생이 조선 사람이란 말을 듣고 다들 친절하게 대접하며 술과 음식을 실컷 먹도록 했다. 포로가 된 연유를 묻고는 말했다. “왜인들이 귀국을 폭력적으로 침략했다는 것은 우리도 들었소.” 저들은 자못 동정하며 딱하게 여기는 기색을 보였다. 이내 책 한 권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귀국 사람 이지봉의 시라오. [지봉은 곧 나, 수광의 호이다. 그 시는 내가 정유년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 안남 사신을 만나 주었던 것이다.] 당신은 고려 사람이니 이지봉을 당연히 아시겠지요?” 조생은 본디 시골 사람으로 젊은 나이에 포로가 된 터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지봉이라 일컬은 까닭에 지봉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들은 모두 의아해했다. 조생이 그 책을 읽어 보니 고금의 명작들이 수백 편 수록되어 있는데, 그 첫머리에 “조선국 사신 이지봉의 시”라 쓰여 있고, 글자마다 朱墨으로 批點이 찍혀 있었다. 또한 그 시편에서 특히 “산은 기이한 형상으로 솟아

상아가 많이 나오(山出異形饒象骨)”라는 한 聯을 가리키면서 “이곳에 象山 이란 지명이 있으니 더욱 묘하군요.”라고 말하며, 서로 칭송하기를 마지 않았다. 며칠 후 조생은 또 그곳의 한 선비의 초청을 받아 성대한 대접을 받았다. “귀국은 禮義之邦으로 일컫는데 우리나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비는 조생에게 여러 가지로 위로하는 말을 했다.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선비가 또 책 한 권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귀국의 재상 이지봉의 작품이라오. 우리나라 유생들은 너나없이 초록해서 외운답니다. 당신도 한번 보시오.” 조생은 당시의 처지가 조석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므로 자세히 살필 베낄 마음이 일지 않아, 紙筆을 청해 그 중 몇 편만을 베껴 배로 돌아왔다. 그 후 학교의 유생들을 보니 과연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았다.³⁹⁾

조완벽이 조선인이라는 일이라는 이유로 안남인들은 그가 온 것에 매우 흥미가 있었던 것 같다.⁴⁰⁾ 현지의 고관 문리후 정초도 일부러

39) 이수광, 『조완벽전』, 252쪽: “(安南)有文理侯鄭剿者, 以宦官用事, 年八十, 居處甚侈, 地多茅蓋, 而唯文理侯家用瓦, 瓦縫用油灰, 以孔雀羽織綃爲帳。一日文理侯招生, 生至則有高官數十人列坐飲宴, 聞生爲朝鮮人, 皆厚待之, 且饋酒食。問其被擄之由曰, 倭奴之侵暴貴國, 倭等亦聞之, 頗有憫惻之色, 仍出一卷書示之曰, 此乃貴國李芝峰詩也。[芝峰即睷光號, 詩即睷光丁酉奉使中朝時, 贈其國使臣者也。]你是高麗人, 能識李芝峰乎? 生以鄉生, 年少被擄, 又不斥名, 而稱芝峰, 故不省芝峰爲誰某。眾歎訝久之。生閱過其書, 則多記古今名作無慮累百篇。而首題曰‘朝鮮國使臣李芝峰詩’, 皆以朱墨批點, 且指其中‘山出異形饒象骨’一聯曰: 此地有象山, 所以尤妙。相與稱賞不已。既數日, 儒生等又請致于其家, 盛酒饌以餉之, 因言貴國乃禮義之邦, 與鄙國同體, 慰諭備至。談問出示一書曰: 此貴國宰相李芝峰之作, 我諸生人人抄錄而誦之, 你可觀之。生自以朝夕人, 無意省錄, 且請紙筆, 只傳寫數篇而還舟。厥後見學校中諸生, 果多挾是書者。”

이 사건에 대한 이수광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다. 예를 들면 문리후 정초라는 이 인물은 이수광의 기록에만 보일 뿐, 정사신과 이준의 기록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와오 세이치의 연구에 따르면 문리후 정초는 안남의 역사에 등장하는 실존인물이며, 당시 안남 會安省 興元縣(趙完璧 등이 당도했던 곳)에서 안남의 대외무역 사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관리라고 하였다(岩生成一, 「安南國渡航朝鮮人趙完璧伝について」, 4~6쪽). 따라서 이 인물의 출현으로 조완벽 사건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40) 이준, 앞의 책, 446쪽: “조생이 조선 사람이란 말을 듣고 앞 다투어 조생을 보려 왔다(聞

그를 초대하여 주연에 참가시키기까지 하였다. 연회석상에서 그들은 조완벽의 경험 및 그와 관련된 전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으로부터 당시 안남인들이 조선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조완벽이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안남인들은 그에게 현지에 전해진 조선인의 시집『조선국사신이지봉시』를 보여 주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조완벽이 나이가 어리고 견식이 짧아 당시 이지봉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당연히 이지봉이 아마도 조선의 옛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안남 유생들이 이지봉의 시문을 앞다투어 베껴 쓰고, 학교의 모든 유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았던’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다른 이에게 이 일을 말했고, 그제야 그 이지봉이 당대의 명신 이수광임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 이수광은 이미 광해군에게 직간을 한 것으로 명성을 떨쳤고, 그 지위 역시 이미 일이 품의 반열에 있었다.

이수광의 『조완벽전』에는 안남인이 자신의 詩作을 전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만 “산은 기이한 형상으로 솟아 상아가 많이 나고” 이 한 구절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사신과 이준은 시문의 내용에 대대 어떤 부분은 상세하게 또 어떤 부분은 간략하게 기록하였다.⁴¹⁾

生爲東國人，爭來見。」

41) 정사신은 “안남 선비가 이지봉의 시를 외웠다. ‘중역(이중 통역)으로 군왕을 배알하네. 한나라 때 銅柱標가 세워진 곳이요, 주나라 때 공현하던 越裳國이로다. 산이 기이한 형상으로 솟아 호골이 풍요롭고 땅에 영기가 서려 龍香이 생산되네.’ 처음과 끝 세 구절을 전하지 않았던 것은 조완벽이 글을 이해하지 못해서 듣고도 자세히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또 ‘상아가 풍요롭다’의 象자를 虎자로 바꾸어 외웠는데 전송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니겠는가?((安南人)仍誦芝峰所作, ‘遠憑重譯謁君王。提封漢代新銅柱。貢獻周家舊越裳。山出異形饒虎骨, 地蒸靈氣產龍香’等。末句首尾三句則不傳之。豈完璧粗解文, 聞之不能詳耶? 且饒象骨之象字, 以虎字傳誦云, 豈亦誦之者之訛耶?)”라 하였다(정사신, 『조완벽전』, 463쪽). 정사신은 조완벽이 말한 시문에 처음과 끝 세 구절이 누락되었음을 문제삼았으며 그 중에는 또 틀린 글자도 있었다. 하지만 이준은 이 시를 완전하게 기록하고

詩作의 전문은 이러하다.

萬里來從瘴蠺鄉,	만리나 먼 瘴氣 많은 고장에 와서
遠憑重譯謁君王.	중역(이중 통역)으로 군왕을 배알하네
提封漢代新銅柱,	한나라 때 銅柱標가 세워진 곳이요
貢獻周家舊越裳.	주나라 때 공헌하던 越裳國이로다
山出異形饒象骨,	산이 기이한 형상으로 솟아 상아가 풍요롭고
地蒸靈氣產龍香.	땅에 영기가 서려 龍香이 생산되네
即今中國逢神聖,	이제 중국의 신성한 황제를 만나
千載風恬海不揚.	좀처럼 얻기 어려운 태평성대 누리누나

이수광은 이 시가 그가 “丁酉년에 사신으로 중국에 갔을 때 안남의 사신에게 준 것”이라고 하였고, 이준도 “이 시는 공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안남 사신 풍극관을 객사에서 만나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하였다.⁴²⁾ 1597년에 이수광은 이미 정3품의 관직을 제수받았고, 成均館 大司成과 承政院 右承旨 등의 직책을 맡았다. 그는 進慰使 신분으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고, 그 기간에 안남 사신 풍극관과 자주 왕래하였는데, 그들이 주고받은 詩作이 두 사람의 문집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⁴³⁾

있다. 이것은 이준 자신이 보충하여 넣은 것이 분명하다(위의 책, 446쪽).

42) 이준, 위의 책, 446쪽: “詩即公聘上國時遇安南使臣馮克寬於逆旅, 相與酬唱者也.”

43) 당시 이수광이 풍극관에게 준 시는 모두 두 수이다. 앞서 인용한 시 외에 다른 한 편은 “듣건대 그대의 집 구진에 있다 하니, 물길 산길 일만여 리구려. 의관과 제도 다르다 말하지 마소, 문자를 가져 시서를 함께 하지 않는가. 백치 받친 뒤부터 오랑캐 지방과 통했었는데, 지금 포모 바치려 상여타고 조회왔네. 염주를 돌아다보면 돌아갈 길 먼데 누가 다시 지남거를 만들어주려나(聞君家在九真居, 水驛山程萬里餘. 休道衣冠殊制度, 離將文字共詩書. 來國獻雉通蠻徼, 貢爲包茅觀象輿. 回首炎州歸路遠, 有誰重作指南車)”. 풍극관이 화답한 시도 역시 두 수가 있다. “이역이 다같이 예의의 나라에 귀의하니, 기쁘게도 오늘 함께 입조하게 되었구려. 조회하는 반열에는 온 나라의 관이 잇달았고 관광으로는 순임금의 문물을 보겠

(2) 安南의 國情, 풍속과 물산

정보의 전파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봉의 시가 안남에서 유행했다는 것은 조완벽이 가지고 온 대량의 안남 정보들 중에서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고대 조선인들의 안남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진정한 정보는 여러 『조완벽전』에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안남의 국정, 풍속, 물산 등에 관한 내용이다.

안남의 국정과 관련하여 이수광의 기록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다. 첫째는 조완벽이 도착한 항구도시 흥원(홍옌)현이 당시 안남의 수도였던 ‘東京(통킹, 하노이)’에서 80리 거리에 있었다는 지리적 개념이고, 둘째는 당시 안남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하나는 안남국이고 다른 하나는 交趾國이었다.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으나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⁴⁴⁾ 안남의 국내 정치 상황이다. 정사신은 안남에서 시행되는 과거제도의 상황에 대해 “향거는 우리나라 지방 고을에서 시험을 보여 서울로 올려 보내는 것과 비슷했다”라고 언급하였으며,⁴⁵⁾ 이준은 안남의 “시서를 익히는 교육과

네. 궁정에서 잔치 베푸니 황제의 은택 젖었고 돌아가는 소매에는 천향의 향내 풍기네.
군자라야 진군자를 알아보는 법, 요행히 시로 칭찬을 받았구려(異域同歸禮義鄉, 喜逢今日
共來王. 趨朝接武殷冠辱, 觀國瞻光舜冕裳. 宴饗在庭沾帝澤, 歸來滿袖惹天香. 唯君子識眞
君子, 幸得詩中一表揚)”, “어디에서나 안거하고자 하지만 편치 않았건만 예로 맞아주고
진심으로 대해 주니 기쁘기 그지없어라. 그대와 나 비록 나라는 다르나 연원은 같은 성현의
경적에 있으리. 교린에는 신뢰가 근본이니 덕으로 나아가 깊이 헤아려 공경히 가마를 만드
노니. 기억하리라 그대가 가마 타고 돌아가는 날 동남쪽에서 오색 운거 보았던 것을(義安
何地不安居, 禮接誠交樂有餘, 彼此雖殊山海域, 濡源同一聖賢書. 交鄰便是信爲本, 進德深
惟敬作輿. 記取使輶回國日, 東南五色望雲車)” 이 시들은 모두 이수광의 『芝峰集』 卷8 「安
南國使臣唱和問答錄」에 수록되어 있으며(『韓國文集叢刊』 第66冊, 85쪽),馮克寬의 『使華
手澤詩集』과 『梅嶺使華手澤詩集』에도 수록되어 있다(復旦大學文史研究院·成均館大學東
亞學術院 合編, 『越南漢文燕行文獻集成(越南所藏編)』 第一冊, 65~66쪽, 98~100쪽).

44) 이수광, 『조완벽전』, 252쪽: “國內中分爲二, 一安南國, 一交趾國, 互相爭戰, 未決勝負.”

45) 정사신, 『조완벽전』, 463쪽: “鄉舉則如我國之鄉邑都會試取, 以送于王都云.”

관제 법도는 대략 중국의 것과 비슷했다”라고 언급하였다.⁴⁶⁾ 이외에 이수광은 『조완벽전』에서 “그곳은 기후가 매우 온난하다”, “날씨는 낮엔 뜨겁고 밤에는 서늘하다” 등과 같이 현지 기후 조건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아울러 안남의 농경상황에 대해서도 “벼농사는 정해진 철이 없이 3월 중에 처음 심는가 하면 거의 익어 가는 곳도 있으며, 추수를 하는 곳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⁷⁾

여러 판본의 『조완벽전』에는 안남의 사회 풍속과 인정에 대한 언급을 기록한 것도 상당하다. 예를 들면 이수광은 “그 나라 사람들은 남녀 모두 머리를 풀어 흘뜨리고 맨다리로 신발을 신지 않는데, 벼슬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다”고 하였고,⁴⁸⁾ 정사신은 안남인이 맨발에 익숙한 원인에 대해 “대개 이 나라는 땅이 진흙이나 자갈이 없이 부드러운 흰모래로 덮여 있는 데다 기후가 겨울에도 봄처럼 따뜻한 까닭에 맨발로 다녀도 발이 상할 우려가 없다”라고 제시하고 있다.⁴⁹⁾ 또 이수광은 치아에 칠을 하는 안남인의 관습 및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현상에 대해 “어른들은 이빨에 검은 칠을 하였다. 이 나라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 어떤 노인은 머리가 하얗게 셨다가 다시 누렇게 되었고 치아가 어린아이처럼 돋아났다고 하였다. 이른바 黃髮兒齒이다. 그분의 나이를 물으니 120세라 하였다. 백세가 넘은 노인이 종종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⁵⁰⁾ ‘黃髮兒齒’의 이야기는 “이미 복을 많이 받으시어 머리도 누렇고 이도 새로 나셨다네”라는 『詩

46) 이준, 앞의 책, 446쪽: “習詩書之教, 官制法度, 略倣中朝。”

47) 이수광, 『조완벽전』, 253쪽: “其地甚緩. ……水田耕種無時, 三月間, 有始耕者、有將熟者、有方獲者. 日候晝熱夜涼。”

48) 이수광, 『조완벽전』, 252쪽: “其國男女皆被髮赤腳, 無鞋履, 雖官貴者亦然。”

49) 정사신, 『조완벽전』, 463쪽: “蓋其國土無泥滓無石塊, 只有軟白沙, 冬暖如春, 故跣行不傷足。”

50) 이수광, 『조완벽전』, 252~253쪽: “長者則漆齒, 其人多壽, 有一老人髮白而復黃, 齒則如小兒, 所謂黃髮兒齒者也. 問其年則百有二十, 其過百歲者比比有之。”

經·魯頌·閟宮의 구절로, 장수를 형용하는 데 사용된다. 조완벽은 월남에서 정말로 머리카락이 흰색에서 다시 누런색으로 변하는 어르신을 보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수광은 “풍속이 독서를 숭상하여 향촌에는 늘 항상 학당이 있는데, 왕왕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은 다들 唐代 李瀚이 엮은 아동 학습 교재 『蒙求』와 『陽節潘氏論』를 외웠고 더러는 시문을 익히기도 한다”, “글자를 읽는 방식은 입술을 붙여서 소리를 내는 合口聲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글자를 읽는 것과 유사하다”, “종이가 무척 귀하여 서적들은 모두 중국에서 간행된 唐本이다”, “조총 다루기를 좋아하여 어린아이까지도 총을 쏠 줄 알았다” 등 안국의 사회 상황을 다루기도 하였다.⁵¹⁾

이외에 정사신은 안남의 여인들이 무역에 열심인 현상을 기록하고, 이것은 안남의 남자가 매년 초에 처첩에게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처첩들은 사고파는 활동에 종사하여 생활을 개선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이 나라에선 남자들이 처첩을 많이 거느리는데, 부유한 자들은 수십 명에 이르기도 했다. 매년 초봄에 남편 되는 사람이 처첩들에게 금이나 은 약간 냥을 나누어 주어 장사 밑천을 삼도록 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받은 금과 은으로 그해가 다 갈 때까지 사고파는 행위를 일상으로 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국의 상선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으면 높은 벼슬아치의 처첩들까지 다 가마를 타고 온 집안의 자녀와 권속들을 거느리고 와서 출지어 앉아 있다. 일본인들과 값을 홍정하는데 혹은 처녀를 보여주고 폐백을 구하기도 했다. 이네들이 출입할 적에는 앞뒤로 호종을 많이 세워

51) 이수광, 『조완벽전』, 253쪽: “俗尙讀書, 鄉間往往有學堂, 詩聲相聞. 兒童皆誦蒙求及陽節潘氏論, 或習詩文”, “其讀字用合口聲, 與我國字音相近”, “但紙最貴, 書籍則皆唐本”, “喜習鳥銚, 小兒亦能解放”.

행차가 자못 성대했다.⁵²⁾

월남의 여인들이 무역 활동에 참가했던 상황과 관련하여, 조선의 제주도민들이 안남으로 표류한 것을 기록한 문헌인 『晝永編』을 통해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제주도 표류민들이 안남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급한 처지였는데, 그들을 위해 보증인을 세우고 곤경에서 구제한 것은 바로 “비단 옷을 입고 노리개를 휘날리던” 여인들이었다.⁵³⁾

안남의 물산과 관련된 기록은 이수광의 『조완벽전』에만 보일 뿐이다.

바다가 가까운 곳임에도 해산물은 풍족하지 않다. 과일은 글과 여지 외에 별다른 것이 없다. 곶감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오직 檳榔만을 늘 씹는데 푸른 잎사귀에 싸서 씹는 것이었다. 그것이 무슨 나무의 잎인지는 알 수 없었다. (小說 『古今說海』에 ‘남방 사람들은 빈랑을 먹는데, 扶留藤과 함께 씹으면 떫지 않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빈랑나무는 높이가 여러 길로 쭉 곧고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으며 입은 파초와 비슷했다. 목화는 나무가 높고 큰데 밭머리 곳곳에 서 있다. 꽃은 크기가 작약꽃만 하며, 실을 뽑아 베를 짜면 매우 견고하다. 뽕나무는 벼나 보리처럼 매년 밭에다가 가꾸어 잎사귀를 따서 누에를 먹이는데, 絹紗가 풍족해서 귀천의 구분 없이 다들 입는다. 목이 마르면 사탕수수를 먹는다. 밥은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며 늘 소주를 마시는 것 같았다. 沈香가루로 기름을 짜서 몸과 얼굴에 바른다. 체형은 맷돼지 같고 색

52) 정사신, 『조완벽전』, 463쪽: “且其國男子多畜妻妾, 豪富者多至數十. 每年春初, 其夫分與金銀若干兩於其妻妾, 使爲買賣資. 其妻妾以其金銀爲終年售納之業以爲常. 故其妻妾聞異國賈舶來至, 則雖卿相之妻妾, 必皆乘屋轎, 盡率一家子女眷屬以來列坐, 與倭人論價, 或示其處女, 求面幣. 其出入, 多從衛前導, 甚盛矣.”

53) 鄭東愈, 『晝永編』 四卷四冊, 首爾: 國立中央圖書館, 藏書號: 古091-7, 第二冊, 2章 참조

이 검푸른 물소가 있다. 집에서 사람들이 가축으로 길러 생기질을 시키고 잡아먹기도 한다.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낮에는 소들이 물속으로 들어 가 있다가 해가 진 후에 밖으로 나온다. 물소는 뿔이 아주 큰데 지금 黑角 이 그것이니, 왜인들이 무역해 들여오는 것이다. (『(新)五代史』에서 ‘占城 (참파 왕국)에 水兜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水牛가 외뿔소(兜)가 아닌가 한다.) 코끼리는 오직 老撾(라오스) 지방에서 생산되는데 象山이라 불리는 곳이다. 길이가 가장 길어 5~6척이나 되는 德象이 있다. 국왕은 코끼리를 사육하는데 70마리 정도 되며 행차를 할 적에 코끼리를 탄다. 코끼리 중에는 사람처럼 절을 하며 무릎을 끓는 놈도 있다. 공작새, 앵무 새나 흰 꿩, 자고새 그리고 후추 등이 많이 산출된다.⁵⁴⁾

여기에서 다룬 안남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안남은 비록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산물이 결코 많지 않다. 안남에서 나는 과일의 종류는 비교적 단일하다. 귤과 여지가 있을 뿐이다.⁵⁵⁾ 안남인은 빈랑을 씹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빈랑의 식용 방법과 빈랑나무의 형태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안남에서는 도처에서 목화수(목면나무)의 일종을 볼 수 있다. 이 나무는 꽃이 매우 커서 작약과 유사하며, 이러한

54) 이수광, 『조완벽전』, 253쪽: “地雖濱海, 海產不敷. 果則橘荔子外, 無他雜果. 飽以乾柿則不識之. 唯常喫檳榔, 以青葉同食, 未知爲何物也. (小說曰, 南人食檳榔, 以扶留藤同咀, 則不澁云, 蓋此物也.) 檳榔樹高數丈, 莖直如竹有節, 葉似芭蕉. 木花樹甚高大, 田頭在處有之, 花大如芍藥, 縢而作布甚堅韌. 桑則每年治田種之如禾麥, 摘桑以飼蠶. 絲絹最饒, 無貴賤皆服之. 渴則啖蔗草. 飯則僅取充腸. 常飲燒酒. 用沈香屑作膏塗身面. 有水牛, 形如野豬, 色蒼黑, 人家畜養, 作耕或屠食. 以日氣熱, 故畫則牛盡入水, 日沒後方出. 其角甚大, 即今黑角, 倭奴貿取以來. (五代史云占城有水兜, 所謂水牛, 疑即兜也.) 象則唯老撾地方出焉, 謂之象山, 有德象, 其牙最長幾五六尺. 國王畜象至七十頭, 出則騎象. 象有拜跪如人者. 孔雀、鸚鵡、白雉、鷗鵠、胡椒亦多產焉.”

55)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수광은 『조완벽전』에서 “2~3월에 수박이나 참외 등이 나온다(二三月有西瓜甜瓜等物.)”라고 하였으므로,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옛 사람들은 박과 식물과 과일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으나 현대인들은 과일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나무로 매우 질긴 옷감을 만들 수 있다. 안남인은 뽕나무를 밭에서 가꾸었다. 다시 말해 地桑을 심는데 일반 뽕나무보다 수확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안남의 양잠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명주실의 생산량도 많아서 안남인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명주실로 지은 옷을 입는다. 이외에 몸체가 큰 물소, 남아시아의 특산물인 코끼리 및 공작, 앵무새, 흰 꿩, 자고새와 같은 동물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안남에서 후추가 많이 난다고 덧붙이고 있다. 여기에 기록된 안남의 여러 특산물의 상황은 안남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묘사일 뿐만 아니라 이후 조선인들이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될 지식 자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 후대의 조선 학자 李圭景은 일종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五洲衍文長箋散稿』라는 책에서 이수광의 『조완벽전』의 관련 기록을 인용하여 목면, 지상, 공작 등 사물의 속성에 대한 소개를 보충하기도 하였다.

交趾 安定縣의 목면은 높이가 한 길 남짓이고, 中原 嶺南의 목면은 높이가 여러 길이다. 봄에 붉은 꽃이 피는데, 攀枝의 종류이다. 우리나라 동쪽 嶺南 晉州府 사람 趙完璧이 왜에 포로로 끌려가 安南國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보았던 목화는 나무가 상당히 높고 커으며 밭머리 곳곳에 서 있었고, 꽃은 크기가 작약꽃만 하며 실을 뽑아 베를 짜면 매우 견고하다고 하였다.

『趙完璧傳』을 읽어보니, 조완벽은 晉州 사람으로, 표류하여 안남국에 들어갔으나 결국 살아 돌아와 그 나라의 풍속에 대해 많은 것을 전해주었다. 안남국에서는 뽕나무를 심었는데, 밭에 심어 벼나 보리처럼 매년 밭에다가 가꾸어 잎사귀를 따서 누에를 먹이는데, 견사가 풍족하여 귀천의 구분 없이 다들 입는다. 밭에서 자라는 뽕나무는 일반 뽕나무보다 백배나 높고 크므로, 조완벽의 말을 알만하다.

『趙完璧傳』에서 조완벽은 丁酉倭亂을 겪고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

갔고 상인을 따라 이리저리 다니다 안남국까지 갔으나 결국 살아 돌아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안남에는 공작이 많다고 하였다. 안남 사람 문리후 정초의 집에 공작 깃털로 짠 생초로 휘장을 둘렀다고 할 정도였으니, 그 상황을 알만하였다.⁵⁶⁾

4) 吕宋, 琉球와 日本에 관한 견문

이수광의 『조완벽전』은 조완벽의 안남에서의 견문 이외에도, 여송, 유구와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 내용은 정사신과 이준의 기록에는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조생도 저들을 따라서呂宋國(지금의 필리핀 루손)에 간 적도 있었다. 여송국은 서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여러 진기한 물화가 많이 생산되며 사람들은 대부분 승려처럼 머리를 깎았다. 유구(오키나와)는 땅이 매우 협소하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들 상투를 옆으로 틀어 올리고 두건을 착용했으며, 칼이나 총 같은 무술에 힘쓰지 않는다. 薩摩(사쓰마)에서 3백 리 떨어진 곳에 硫黃山이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산 빛이 온통 노랗고 5~6 월이 되면 으레 연기와 화염이 올라온다.⁵⁷⁾

56) 이 세 가지의 자료는 각각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上·下編)(東國文化社, 1959), 上編 496쪽, 432쪽, 下編 550쪽에 보인다.

上編 496쪽: “交趾安定縣有木棉，高丈餘。中原嶺南木棉樹高數丈，春開紅花。即攀枝之類。我東嶺南晉州府人趙完璧，俘於倭，入安南國。見棉樹甚高大，田頭在處有之，花大如芍藥，績而作布，甚堅韌云。”

432쪽: “愚嘗閱『趙完璧傳』，完璧即晉州人也，漂入安南國，竟得生還，多傳彼國之俗云。其國種桑，每年治田，種之如禾麥，摘葉以飼蠶，故一歲八蠶，而桑自不貴，絲絹最饒，無貴賤皆服之。其田桑之利，百倍於高大之桑，足可知矣。”

下編 550쪽: “我東『趙完璧傳』，完璧丁酉倭亂，俘入日本。隨商轉地安南國，竟生還。言安南多產孔雀，國人文理侯鄭剛家，以孔雀羽織綃爲帳，其土產可知也。”

57) 이수광, 『조완벽전』, 253쪽: “生亦嘗隨往呂宋國，國在西南海中，土多寶貨，人皆髡髮爲僧。

이수광은 조완벽이 일본 상선을 따라 세 차례 안남을 왕복한 것 외에도 항해하여 여송국에 한 차례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나라는 서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여러 진기한 물화가 많이 생산되며 사람들을 대부분 승려처럼 머리를 깎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일본 학자 이와오 세이치도 매우 중요하게 본 부분으로, 일본의 문헌 중에 그 당시 상선이 南洋 지역과 무역을 했다는 자료가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 만약 『조완벽전』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17세기 일본 상인이 남양 무역 활동을 시작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⁵⁸⁾ “유구는 땅이 매우 협소하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들 상투를 옆으로 틀어 올리고 두건을 착용했으며, 칼이나 총 같은 무술에 힘쓰지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유구는 조완벽이 안남과 여송으로 항해할 때 지나갔던 곳이었으므로 간단히 그 인상만을 남기고 있다. 유구 사람들에 대해 “상투를 옆으로 틀어 올리고 두건을 착용했다”고 한 것과 “칼이나 총 같은 무술에 힘쓰지 않는다”라는 묘사는 다른 자료에 보이는 고대 유구의 상황과 기본적으로 모두 부합한다. 이외에 마찬가지로 안남과 여송을 왕래하는 도중에 조완벽은 “살마에서 3백 리 떨어진 곳에 유황산이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산 빛이 온통 노랗고 5~6월이 되면 으레 연기와 화염이 올라온다”고 했다. 유황산이 가리키는 것은 일본 살마 반도 이남의 화산섬으로, 지금은 유황도라고 부르며 일본 가고시마(鹿兒島縣) 관할이다.

이수광의 『조완벽전』에는 일본의 상황에 대한 기록도 있으나 두 구절뿐이다.

琉球地方甚小，其人皆偏髻着巾，不習劍銃諸技。距薩摩約三百里有硫黃山，遠望山色皆黃，五六月常有煙焰。

58) 岩生成一, 앞의 글, 7쪽.

일본에 있을 때 보니 경도에 徐福祠가 있는데, 중국 秦나라 때의 方士徐福의 후예라는 이가 주관하고 있었다. 불법을 배워 행했고 食邑은 받지만 국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또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서적을 매우 귀하게 여겨 보배처럼 여기는 자가 많았으며, 안남인들도 많은 재물을 들여 구입했다.⁵⁹⁾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일을 이야기했다. 첫째는 조완벽이 일본 경도에서 서복사를 본 것이다. 아울러 이 서복사가 “서복의 후예가 주관하고” 있었으며, “불법을 배워 했다”는 것은 이 서복사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인 듯하다. 그리고는 서복의 후예가 일본에서 “식읍은 받았으나” 국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둘째는 일본인이 조선 서적을 귀하게 여겼고, 안남인도 일본인으로부터 앞다투어 구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일본인이 서적의 수집과 보존을 중시했던 것은 모두 주지하는 사실이다. 17세기 전후 일본과 조선 사이의 왕래는 중국과의 왕래에 비하면 훨씬 밀접하고 빈번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한문서적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고, 이 기록은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안남인들이 일본인으로부터 고가로 책을 샀다는 이 기록은 당시에 한문서적이 일본에서 안남으로 전해지는 경로가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조완벽이 1597년 일본에 와서 1607년 돌아가기까지 기간은 10년에 달한다. 그가 일본에서 생활한 시간은 안남을 왕래한 시간보다 훨씬 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식적으로 그의 일본견문은 안남의 견문보다 훨씬 풍부할 것이다. 하지만 『조완벽전』에서 일본의 상황

59) 이수광, 『조완벽전』, 253쪽: “在日本時，見京都有徐福祠，徐福之裔主之，學浮屠法，有食邑，不預國政。且倭人最重我國書籍，多寶藏之，安南人亦以重貨。”

과 관련하여 볼 수 있는 것은 겨우 이 짧디짧은 두 마디의 내용뿐이다. 기록자의 편애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사람은 늘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더 큰 흥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17세기의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간 무역 관계가 있어서이든, 양국 간 사절이 왕래하여 소식을 전달했기 때문이든, 혹은 전쟁 기간에 지피지기를 목적으로 정보를 염탐하였기 때문에서든, 모두 인근 일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득히 먼 안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선인이 아는 바는 거의 없어 신비감을 갖고 있었으므로, 조완벽 사건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안남의 소식 부분에 집중되고 일본에 대해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당연하다. 연구자들은 문헌상으로 더 많은 자료를 제공받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문헌에 나타나는 약간의 실마리라도 다행스러워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조완벽전』에 남아 있는 여송, 유구, 일본에 대한 소량의 자료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여론(餘論)

“무릇 안남은 우리나라에서 수만 리나 떨어져서 예로부터 통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바닷길로 멀고 험함에 있어서랴! 조생은 동쪽 끝에서 저 交南의 땅에 닿기까지 험난한 풍파를 넘어 남만의 나라로 항해 하여 만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온전히 돌아왔다. 실로 전고에 없던 일이다”라고 했던 이수광의 말처럼 조완벽이 멀리 안남으로 간 경험은 이수광의 말처럼 당시의 조선인들이 보기에도 매우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수광은 “(『論語·衛靈公』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돈독하면 야만의 땅이라도 갈 수 있다’고 하

셨으니 조생과 같은 사람이 아마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하여 조완벽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주인공 조완벽의 이름이 전국시대 조나라의 인상여와 관련된 完璧歸趙의 전고에서 나왔으며, 그 경험 또한 완벽귀조의 뜻과 암암리에 통한다는 점이다. 과연 이수광도 말하고자 하였다. “조생은 이름이 完璧이니 참으로 자기 이름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⁶⁰⁾ 때로 역사는 이러한 우연의 일치로 인해 흥미로워진다. 이러한 흥미로운 작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 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1) 조완벽 사건과 임진왜란 포로 연구

16세기 말에 발생한 임진왜란은 중국, 일본, 조선 삼국의 역사적 운명에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깊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일부 연구자의 관심이 전쟁 자체에서 전쟁이라는 배경하에 이루어졌던 사람들의 왕래와 문화교류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임진왜란 중에 노예가 되어 일본으로 간 조선인은 약 10만 명인데, 전쟁 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은 겨우 6천~7천이다. 포로로 일본에 남은 사람 중 적지 않은 이들이(도자, 의료, 금속 공예 등과 같은) 특정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과 어느 정도의 문화 수준을 가진 선비였다. 이들은 조선과 일본 간의 기술과 문화 교류에 있어 중요한 중개자가 되었다.⁶¹⁾

60) 이수광, 『조완벽전』, 254쪽; “生名爲完璧, 抑可謂不負其名者歟.”

61) 金泰俊, 앞의 책 참조.

포로가 된 이들과 관련된 다량의 문헌도 끊임없이 발굴되어 연구되고 있다. 한국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포로가 된 사람들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실제 역사를 기록한 문헌으로는 姜沆의『看羊錄』, 魯認의『錦溪日記』, 鄭希得의『海上錄』, 鄭慶得의『萬死錄』, 鄭好仁의『丁酉避亂記』등이 있고, 傳記적 성격을 띠는 문헌으로는『白義士傳』,『姜沆傳』,『趙完璧傳』,『申起金傳』,『東萊梁敷河傳』,『樸節士傳』등이 있으며,『崔陟傳』,『周生傳』,『衛慶天傳』,『南允傳』,『李翰林傳』,『壬辰錄』등과 같은 소설이 있다.⁶²⁾ 이 글에서 언급한『조완벽전』은 이 중 하나일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중에서 소설『崔陟傳』에는 최척 부부가 포로가 된 뒤 헤어지고, 이후 일본 상선의 행상을 따라갔다가 안남에서 다시 상봉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이다.『최척전』은 비록 허구적 작품이지만, 그 안에 나타나는 일본 상선과 안남이라는 요소는 아마 조완벽 사건의 전파와 관계가 없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포로가 된 사람들과 관련된 연구에서 조완벽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현재 점점 더 많은 문헌 단서가 수면 위로 올라와 이 주제에 대한 넓고 넓은 연구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2) 조완벽 사건을 통해서 본 해양 교통과 인적 교류

조완벽의 안남행을 가능하게 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 해상 교통이라는 방법이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완벽이 조선에서 일본에 갈 때, 일본에서 세 차례 안남을 오갈 때,

62) 鄭出憲의『임진왜란의 상처: 전쟁 포로의 고통의 기억과 희망을 넘어』(2012년 韓國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과 中國海洋大學 韓國研究中心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海洋과 동아시아文化交流' 國際學術會議 發表論文) 참조.

더 나아가 유구와 여송에 다녀오고, 마지막으로 조선에 돌아올 때, 이 모든 과정은 해상 교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17세기 아시아 해역에서 해상 교통으로 도달할 수 있었던 지역적 범위와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해양을 매개로 빈번하게 교류했던 상황에 대해 더욱 직관적 인상을 받을 수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역사상 조선과 안남 간의 인적 교류와 관련된 기록은 매우 적다. 그러나 관련 정황을 제시해 줄 문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7세기에 안남 상인이 조선의 제주도에 표류한 적이 있고,⁶³⁾ 제주도의 관리와 백성들도 안남에 표류한 적이 있다.⁶⁴⁾ 이 두 사건도 마찬가지로 모두 해양을 매개로 하여 발생한 것이다. 통상적인 인식으로 조선과 안남의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에 양자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실 조선시대에 들어온 이후, 양자 사이에 국가적 외교나 상업 무역 등으로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던 상황은 매우 적다. 그러나 해양이라는 매개 및 해상 교통이라는

63) 1612년, 안남과 중국 南京의 일부 상인들이 제주도에 표류했다. 배 안에 많은 금은보화를 발견한 제주도의 관리들은 상인들을 모두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갔고 나중에는 배를 전소하고 이 일을 왜구가 한 짓이라 허위 보고하였다. 이 일은『朝鮮王朝實錄·光海君日記』卷50 光海君四年二月初十日條에 기록되어 있다(太白山史庫本影印本), 第27冊, 316쪽).

64) 1687년, 제주도 사람 金泰璜 등이 楸子島(지금의 濟州島 北濟州郡 楸子島) 근해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31일 만에 安南 會安郡 明德府에 이르렀다. 후에 그 중 다섯 사람이 당시 안남국의 수도 升龍으로 와서 황제 黎熙宗(黎維裕)을 알현하였고, 안남 국왕이 錢米를 주어糊口하게 하였다. 조선 사람이 귀국하기 전에 안남 국왕은 조선 국왕에게 공문을 써 주었다. 중국 상인 朱漢源과 뱃사람 陳乾 등이 조선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조선으로 돌아오는 상선은 1688년 8월 7일에 출발하여 寧波府와 普陀山을 거쳐 12월에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이 일은『朝鮮王朝實錄·肅宗實錄』卷20 肅宗十五年二月十三日條에 기록되어 있다(太白山史庫本影印本), 第39冊, 158쪽). 이외에 조선 사람 鄭東愈(1744~1808)의『晝永編』에 그 당시 표류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1,788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류의 경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남의 풍 송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조완벽전』과 서로 증거가 될 수 있겠다(鄭東愈, 앞의 책, 1~10쪽). 그 당시 표류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학자 가타쿠라 미노루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片倉穣,『朝鮮とベトナム日本とアジア:ひと・もの・情報の接觸・交流と對外觀』, 東京: 福村出版, 2008, 第三章, 「濟州島吏民のベトナム漂流記録」 참조).

경로의 존재는 양자가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을 제공한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 해역에서 표류한 사람들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를 통해 해양을 매개로 형성된 인적 교류라는 중요하면서도 풍부한 지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제주도에 사람이 표류한 사건 및 조완벽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은 분명 아시아 해역에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훌륭한 사례라 하겠다.

3) 등장하지 않은 존재⁶⁵⁾: 조완벽 사건에 나타난 중국이라는 요소

현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조완벽 사건에 반영된 내용을 감안하여 조선과 안남 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그 안에서 일본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통해 임진왜란이라는 배경 하의 조선과 일본의 관계, 또는 일본과 안남의 상업무역 교류를 연구한다. 중국학자들이 이 사건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이 사건과 중국이 관련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인 듯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가 이미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토론 가능한 화제를 대부분 놓치고 있는데, 바로 중국이라는 요소이다.

표면적으로 조완벽의 모든 경험은 중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지만 상세한 연구를 통해 이 사건에 여전히 적지 않은 중국의 그림자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슈인센이 중국에서 생산되었고 배에 탄 사람도 중국 절강사람이었다는 기록은 사실 당시 중국의 조선 기술과 항해 기술이 아시아 해상 교통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조완벽이 언급한 “안

65) 復旦大學文史研究院 ‘交錯文化史’ 読書班에서 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당시 토론 중에 葛兆光 교수가 중국을 “등장하지 않은 존재”라고 한 바 있다. 이 글을 수정하면서 이러한 관점을 빌렸음을 밝혀둔다.

남에 유행한 이지봉의 시”와 관련된 사건에도 배후에 분명히 중국의 요소가 있다. 이수광과 풍극관의 시문 교류는 줄곧 조선과 안남의 관계사, 또는 양자 간의 문학교류사의 중요 사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실상 이 교류가 원래 중국이라는 중간 고리를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조선과 안남 사신이 朝天이나 燕行 使行의 활동을 통해 중국에서 만나 교류한 비슷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⁶⁶⁾ 조선과 안남 양국은 중국을 매개로 하여 문학 교류에서 그치지 않고 기타 여러 방면의 정보도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빈번하게 교환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조완벽이 고용되어 상선에 오른 것은 그가 한자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수광의 시가 안남에서 유행한 것도 안남에서도 한자를 사용했고 한자를 익혔으며 한시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수광은 그의 시에서 “의관과 제도 다르다 말하지 마소, 문자를 가져 시서를 함께 하지 않는가(休道衣冠殊制度, 卻將文字共詩書)”라고 하였으며, 풍극관 또한 “그대와 나 비록 나라는 다르나 연원은 같은 성현의 경적에 있으리(彼此雖殊山海域, 潤源同一聖賢書)”라고 화답하였다. 두 사람의 시구가 모두 ‘같은 문자를 쓰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조완벽 사건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항해 기술의 관점이나 정치 문화 교류의 중개라는 관점, 한자와 한문 사용의 관점에서 사실상 ‘등장하지 않은 존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등장하지 않은 존재’였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면 반드시 역사 인식 시각의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과거에

66) 예를 들면 1458년 조선 사신 徐居正과 안남 사신 梁鵠, 15世紀 하반기 조선 사신 曹伸과 안남 사신 黎時舉, 1481년 조선 사신 洪貴達과 안남 사신 阮文質 및 阮偉, 1496년 조선 사신 申從濩와 안남 사신 武佐, 1760년 조선 사신 洪啟禧와 안남 사신 黎貴惇, 1789년 조선 사신 徐浩修와 안남 사신 潘輝益 등 모두 시문을 교류한 적이 있다(姜東煥, 「조선시대 동남아시아문학과의 교류연구」, 『淵民學志』 第8輯, 首爾: 淵民學會, 2000, 63~130쪽).

중국과는 당연히 무관하다고 생각해 왔던 역사 자료에 대해 새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조선 왕조 시기의 通信使 문현은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사신단에 대한 기록이다. 직관적으로 본다면 단지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반영한 역사 자료일 뿐 중국과 무관하거나 관계가 많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 ‘등장하지 않은 존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속에는 사실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의 국내 학계를 전면적으로 살펴보면 통신사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다. 그러나 있는 약간의 논문도 단지 통신사 활동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문헌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거의 없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학자들과 교류할 때 중국이 ‘등장하지 않은 존재’라고 언급하자 바로 격렬한 질문을 받았다. 한국 학자들은 이 말에 중국의 영향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위협이 있다고 여겼는데, 이러한 반응 또한 사실일 리가 있다. 중국학자들이 국가적 자만주의적 입장인 것인지, 한국 학자들이 민족주의적 입장인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겠다. 한발 물어서 이야기하자면 ‘등장하지 않은 존재’라는 표현 방법의 주요 청중은 중국의 역사 연구자들이고 그 목적 또한 하나이다. 중국 역사 연구자들의 주의를 일깨워서 자신과 무관하다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높은 참고 가치를 지닌 역사 자료를 등한시하지 말자는 의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17세기 초에 발생한 조완벽 사건은 비록 지극히 개별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지만, 한 폭의 매우 거대한 장면을 제공하였다. 그 안에는 조선, 안남, 일본, 유구, 여송 그리고 ‘등장하지 않은 존재’ 중국이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많은 국가와 지역 사이에 해양이라 는 매개를 통해 형성된 여러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거나 연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임진왜란, 조천사행, 통신사 활동, 슈인센 무역 등 몇 가지의 역사적 상황을 연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나라별 역사나 국가 간 관계사의 시각에서 진행하는 연구에서 빠트리는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더욱 넓은 시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테면 해역사나 아시아사의 시각이라면 아마 더욱 적합할 것이다. 이것이 조완벽 사건의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깨우침이라 하겠다.

附录

『趙完璧傳』(李暉光)⁶⁷⁾

趙生完璧者，晉州土人也。弱冠，值丁酉倭變，被擄入日本京都，即倭皇所居。爲倭服役甚苦，思戀鄉土，常有逃還之志。倭奴輕生重利，以商販爲農，以舟楫爲鞍馬，海外南番諸國無遠不到。以生曉解文字，挈而登舟，自甲辰連歲三往安南國。安南去日本海路三萬七千里，由薩摩州開洋，歷中朝漳州、廣東等界，抵安南興元縣。縣距其國東京八十里，乃其國都也。國內中分爲二，一安南國、一交趾國，互相爭戰，未決勝負。有文理侯鄭勳者，以宦官用事，年八十，居處甚侈，地多茅蓋，而唯文理侯家用瓦，瓦縫用油灰，以孔雀羽織綃爲帳。一日文理侯招生，生至，則有高官數十人列坐飲宴。聞生爲朝鮮人，皆厚待之，且饋酒食。問其被擄之由曰：倭奴之侵暴貴國，俺等亦聞之。頗有憫惻之色。仍出一卷書示之曰：此乃貴國李芝峯詩也。芝峯即暉光號。詩即暉光丁酉奉使中朝時，贈其使臣者也。你是高麗人，能識李芝峯乎？生以鄉生，年少被擄，又不斥名，而稱芝峯，故不省芝峯爲誰某。衆歎訝久之。生閱過其書，則多記古今名作，無慮累百篇。而首題曰朝鮮國使臣李芝峯詩，皆以朱墨批點。且指其中山出異形饒象骨一聯，曰：此地有象山，所以尤妙。相與稱賞不已。既數日，儒生等又請致于其家，盛酒饌以餉之。因言貴國乃禮義之邦，與鄙國同體，慰諭備至。談間出示一書曰：此貴國宰相李芝峯之作，我諸生人人抄錄而誦之，你可觀之。生自以朝夕人，無意省錄，且請紙筆，只傳寫數篇而還舟。厥後見學校中諸生，果多挾是書者。文理侯謂生曰：你欲求還本國，自此刷還于中朝，可以轉解，你須留此。生欲從其言，而見其國人多詐難信，又聞距本國甚遠不果云。其國男女皆被髮赤脚無鞋履，雖官貴者亦然。長者則漆齒。其人多壽，有一老人髮白而復黃，齒

67) 李暉光,『趙完璧傳』,『芝峰集』卷23「雜著」(『韓國文集叢刊』第64冊, 252~254等).

則如小兒，所謂黃髮兒齒者也。問其年則百有二十。其過百歲者比比有之。且俗尚讀書，鄉間往往有學堂，誦聲相聞。兒童皆誦蒙求及陽節潘氏論，或習詩文。其讀字用合口聲，與我國字音相近。但紙最貴。書籍則皆唐本也。且喜習鳥銃，小兒亦能解放。其地甚煖。二三月有西瓜甜瓜等物。水田耕種無時。三月間，有始耕者、有將熟者、有方穫者。日候晝熱夜涼。地雖濱海，海產不敷。果則橘荔子外無他雜果。饋以乾柿則不識之。唯常喫檳榔，以青葉同食，未知爲何物也。小說曰：南人食檳榔，以扶留藤同咀，則不澁云。蓋此物也。檳榔樹高數丈，聳直如竹有節，葉似芭蕉。木花樹甚高大，頭在處有之，花大如芍藥，績而作布甚堅韌。桑則每年治田種之如禾麥，摘桑以飼蠶。絲絹最饒，無貴賤皆服之。渴則啖蔗草。飯則僅取充腸。常飲燒酒。用沉香屑作膏塗身面。有水牛，形如野猪，色蒼黑，人家畜養，作耕或屠食。以日氣熱，故晝則牛盡入水，日沒後方出。其角甚大，即今黑角，倭奴貿取以來。五代史云：占城有水兕，所謂水牛疑即兕也。象則唯老撾地方出焉，謂之象山，有德象，其牙最長幾五六尺。國王畜象至七十頭，出則騎象。象有拜跪如人者。孔雀、鸚鵡、白雉、鷗鴟、胡椒亦多產焉。生亦嘗隨往呂宋國，國在西南海中，土多寶貨，人皆髡髮爲僧。琉球地方甚小，其人皆偏髻着巾，不習劍銃諸技。距薩摩約三百里有硫黃山，遠望山色皆黃，五六月常有煙焰。在日本時，見京都有徐福祠，徐福之裔主之，學浮屠法，有食邑，不預國政。且倭人最重我國書籍，多寶藏之，安南人亦以重貨求之。生又言海水西高東下。距廣東七十里，海中有鷄龍山，山極高峻，地皆淺灘。鷄龍山之東，水折而東走，舟行甚艱，必由山內以過，不然則漂流至東海乃止。蓋水勢悍急如此，自日本晝夜行四十日或五六十日始達安南，還時則順流十五晝夜可抵日本矣。大海中舟行以風便，故每三四五月可行，六月以後不得行舟。又倭船小，不能駕大海，以白金八十兩購唐船，船中人共一百八十餘名。而唐人之慣習海程者爲船主。用指南針以定東西。又用繩索垂下，鉤出水底土，以其色辨方位遠近。其所見奇怪之事甚多。而海中見游龍，尋

常出沒。一日，數十步外，有蒼龍奄至。舟人失色。俄而黑霧漲空，有五色虹覆之，雨雹交下，波濤騰涌如沸。舟上下震盪几覆，如是者三四。蓋龍奮迅欲升空而未能故也。舟人每遇龍，則輒爇硫黃及雞毛，龍惡其臭避去。是日倉卒，取數十活雞投火燒之。龍又將逼舟，舟人計沒奈何。以銃炮數十，一時齊發，龍忽沒水去，遂得脫云。生至丁未年回答使呂祐吉等入往時，哀告主倭，得還本土。其老母及妻俱無恙。亦異事也。夫安南，去我國累萬里，自古不通，況海道之竄遠乎。生由東極抵交南，歷風濤之險，行蠻貊之乡，冒萬死得一生，以至全還，乃前古所未有者也。孔子曰：言忠信，行篤敬，雖蠻貊之邦行矣。若生者，庶几近之矣。且生名為完璧，抑可謂不負其名者歟。

『趙完璧傳』(鄭士信)68)

趙完璧者，晉州土族人也，故掌令河晉實之姪孫女婿也。丁酉之變，爲倭所搶，以歸于日本，服役使喚，如我國之奴屬焉。倭之欲行商于安南國獲大利者，必求得浙江人老於海善候風者及解文通意者與偕，然後乃行。完璧之主倭，既得候風人，而未得解文人，方以言語莫通爲患，完璧素於晉州學文者也，粗解文理，主倭要與完璧行，爲盟文以約曰：往來安南之後，則永放汝任其所之云。完璧志切返國，不避死乃從之。與浙江人同浮海向安南國。海路不知其幾千里，大洋茫茫，了無島嶼止泊之處。浙江人常於船上，持候風五綯扇及日影臺，夜則看星象以分方位，及由某方向某國之路。如雲南閩浙寧波日本南蠻朝鮮耽羅之屬，瞭然指掌。又以海底沙土之色，辨其爲某地某方。常以長繩懸鐵錘，於錘下塗粘糊飯，繫長繩而下，或至直下三四百餘把者，看其錘底所粘出沙土或壘或白，以辨其地方焉。海中水色或青或白，或赤如血色，或黑如墨汁。其黑處甚惡云。如遇海恠，必祭以油蜜果麵餅等物，擲波上以去，然後得免覆沒。行至一處，候風人曰此處無乃是乎，疑訝

68) 鄭士信，『趙完璧傳』，《梅窓集》卷4「傳」(『韓國文集叢刊』續編，第10冊，462~463等)。

之間，舟已行過。忽見波上似有婦人形作柂之狀，候風者大惊，即致祭祈禱。則柂物即因忽不見，得免患焉。自古相傳此是漢時漂溺之鬼云。見橫海長鯨噴波漲天，則即下碇住船，以俟其止然后乃過。而候風者以為此則易為耳，如見龍來則噴水約一丈許，而舟人每驚惶褫魄。蓋南海常多霧雨，海中多大龍，龍之在海中者，必靠某物上挂其身，然后得云变化升天。其例也，龍挂着船上，船必覆沒。故舟人見龍之來，則錯愕失色，其禳法必以生雞五六十首，炮燭出臭，磔投船頭海波，然后龍乃潛遁無患。故舟中常畜雞數百首以行。完璧之再往來也，适一遇青龍，其鱗甲光芒，蜿蜒來去也。其禳之如許云。舟行五十餘日，乃達安南國界。見其俗皆被髮跣行。蓋其國土無泥滓無石塊，只有軟白沙，冬暖如春，故跣行不傷足。且其國男子多畜妻妾，豪富者多至數十。每年春初，其夫分與金銀若干兩於其妻妾，使為買賣資。其妻妾以其金銀為終年售納之業以為常。故其妻妾聞異國賈舶來至，則雖卿相之妻妾，必皆乘屋轎，盡率一家子女眷屬以來列坐，與倭人論價，或示其處女，求面幣。其出入，多從衛前導，甚盛矣。見處處有愛誦芝峯詩。士人問完璧曰何國人乎？完璧對以朝鮮人，為倭所搶，驅使而來。士人曰：爾是朝鮮人，則爾知東國李芝峯乎？完璧前此未嘗聞知，故以實對。其士人曰：李芝峯爾國文章人也，爾之不知何也？仍誦芝峯所作：遠憑重譯謁君王，提封漢代新銅柱，貢獻周家舊越裳，山出異形饒虎骨，地蒸靈氣產龍香等。末句首尾三句則不傳之。豈完璧粗解文，聞之不能詳耶？且饒象骨之象字，以虎字傳誦云，豈亦誦之者之訛耶？且國俗盛文風，見其家家講誦不絕。鄉舉則如我國之鄉邑都會試取，以送于王都云。且其國之人，外似溫順而心實狡詐多貪慾。其見完璧也，有勸以逃着此國，使之通中國以回朝鮮云。而見其多詐難信，終不肯從云。完璧既回日本，其主倭者背盟不放，又要再往安南，更成盟文為約。完璧不得已再往，及還又不肯放去。傍隣之倭，以其再失信不祥，物議騰沸，主倭不得已放之，以故完璧得自由鳩聚銀兩，圖回本國鄉土。其母與妻俱無恙，今方安居奠業復如初。此事金直長允安而靜云。

『記趙完璧見聞』(李塈)⁶⁹⁾

秀才趙完璧，晉陽人也。丁酉之亂，沒倭中。嘗隨商倭，再往安南國，即古越裳氏界也。所經海水有五色之異，奇詭之物，朝暮見伏無常，不可殫記。一日，望見數十步之外，白沫灑空，鱗甲閃閃，漸見蜿蜒而前，若欲跨行舟而偃息者，蓋龍自海中欲奮迅騰空而未易致力故也。一行愕眙，燐活鷄累十投之，乃避去。大洋茫茫，莫可端倪。有華人之鮮事者同在行中，鉤出水底土，視色而辨方焉。越重溟冒層濤，如附桔槔而下上。水行五十日，方到彼岸。國俗被髮汨齒，其性柔順，習詩書之教，官制法度，略倣中朝。聞生爲東國人，爭來見，以一律誦而告曰：此乃爾國李芝峯作也。其詩曰：萬里來從瘴癘鄉，遠憑重譯謁君王，提封漢代新銅柱，貢獻周家舊越裳，山出異形饒象骨，地蒸靈氣產龍香，即今中國逢神聖，千載風恬海不揚。生意謂芝峯是異代人，謾不致省。後數年回本國，具以事語人，始知所謂芝峯乃今春官亞卿李公暉光所自號，而詩即公聘上國時遇安南使臣馮克寬於逆旅，相與酬唱者也。豈謂適然而遇，咳唾餘屑，散落銅柱之表，人之寶之，不啻若九苞一毛自絳霄而墜也。噫！世之人嘔心肝詠月露，欲托此而名不朽者何限。而風聲過耳湮沒無聞，況望傳播於重譯之鄉，使人雋永之不已耶。彼之有意而所不可得者，公無爲而得之有餘，是何以而致也。詩曰：鼓鍾于宮，聲聞于外。言有其實則其應甚異也。以此而推，安知公前後朝天之作，不竝被天擇管絃，以鳴吾東大雅之盛也。金君而靜，聞此事於趙生，語余甚詳，異而識之，下一轉語，以備史氏之採取。萬曆辛亥暮春，興陽姓某識。

69) 李塈, 『記趙完璧見聞』, 『蒼石集』卷12 「雜著」(『韓國文集叢刊』第64冊, 446等).